

제7권 제3호

ISSN 1599-9009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05. 3/4

2006년 에너지 수요 전망

■ 제목차례 ■

2006년 에너지 수요 전망

요 약	1
I. 국내 에너지 소비 동향	9
1. 총에너지 소비 동향	9
2.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13
3. 석유제품 소비 동향	17
4. 전력 소비 동향	21
5. LNG 및 도시가스 소비 동향	23
6. 석탄 및 기타에너지 소비 동향	28
II. 국내경제 및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	34
1. 국내경제동향 및 전망	34
2. 국제 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	40
III. 2006년 에너지 수요 전망	44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46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50
3. 석유제품 수요 전망	53
4. 전력 수요 전망	56
5. LNG 및 도시가스 수요 전망	58
6. 석탄 및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62

■ 표 차례 ■

<표 I -1> 총에너지 소비 동향	9
<표 I -2> 총에너지 소비증가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기여율	12
<표 I -3>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14
<표 I -4> 최종에너지 소비증가분에 대한 기여율	16
<표 I -5>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 동향	17
<표 I -6> 주요 석유제품 소비 동향	19
<표 I -7> 전력소비 동향	21
<표 I -8> LNG 소비 동향	25
<표 I -9> 도시가스 소비 동향	26
<표 I -10> 석탄 소비 동향	29
<표 I -11> 열에너지·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소비 추이	32
<표 II-1> 최근의 경제동향	35
<표 II-2> 주요 경제지표 전망	38
<표 II-3> 국내 주요기관의 경제지표 전망	40
<표 II-4> 2005년 월평균 국제원유가 추이	41
<표 II-5> IEA 세계 석유 소비 실적 및 전망	42
<표 II-6> 7월 해외 주요기관 유가 전망	43
<표 III-1> 경제전망	44
<표 III-2> 평균기온 및 냉·난방도일 (2006년)	44
<표 III-3> 총에너지 수요 전망	48
<표 III-4>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51
<표 III-5> 부문별 석유제품 수요 전망	54
<표 III-6> 주요 석유제품 수요 전망	55
<표 III-7> 전력수요 전망	56
<표 III-8> LNG 수요 전망	59
<표 III-9> 도시가스 수요 전망	60
<표 III-10> 석탄 수요 전망	64
<표 III-11> 열에너지·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66

■ 그림 차례 ■

[그림 I-1] 총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11
[그림 I-2]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증가율 추이	15
[그림 I-3]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18
[그림 I-4] 주요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1)	20
[그림 I-5] 주요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2)	20
[그림 I-6]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22
[그림 I-7]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 추이	23
[그림 I-8] 도시가스 소비증가율 추이	27
[그림 I-9] 용도별 석탄소비 및 점유율 추이	30
[그림 I-10] 난방도일 및 평균기온 추이	32
[그림 I-11] 석탄 및 기타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33
[그림 II-1] 월평균 국제원유가 추이	41
[그림 III-1] 냉·난방도일 전제(2006)	44
[그림 III-2] 총에너지 증가율 및 경제성장율	47
[그림 III-3] 에너지 소비의 GDP 탄성치	47
[그림 III-4] 난방도일 및 평균기온	47
[그림 III-5] 총에너지원별 점유율 전망	50
[그림 III-6] 전력 수요 전망	57
[그림 III-7]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 추이	58
[그림 III-8] 부문별 도시가스 소비 비중 추이	62
[그림 III-9] 용도별 석탄수요 및 점유율 전망	63

요 약

<’06 에너지수요전망의 시사점>

-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가 저에너지소비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에너지수요증가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임.
- 에너지소비는 향후 기후여건의 일시적 변화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절기 및 하절기 이상 기후에 대비한 에너지수급 관리가 중요함.
- 전력은 고급에너지원으로서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는 추세임(’06년 증가율 6.8%). 한편 ’06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증설이 없기 때문에 타 발전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발전용 LNG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LNG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 서민용 연료인 가정·상업용 연탄(국내 무연탄)의 수요가 ’05년에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빠른 증가세가 ’0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등유에 대한 상대가격 하락으로 연탄의 경제성이 크게 부각된데 원인이 있음. 국내 무연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연탄에 대한 수요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고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5년 석유수요가 1.7% 내외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료유에 대한 석유화학산업의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석유수요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원료유를 제외한 석유수요는 2005년 0.4% 증가, 2006년은 1.2% 감소할 전망이다.

구분	’00	’01	’02	’03	’04	’05	’06
석유수요 증가율(%)	3.2	0.1	2.6	0.0	-1.4	1.7	0.4
원료유제외 증가율(%)	2.4	-1.0	1.1	-1.9	-4.9	0.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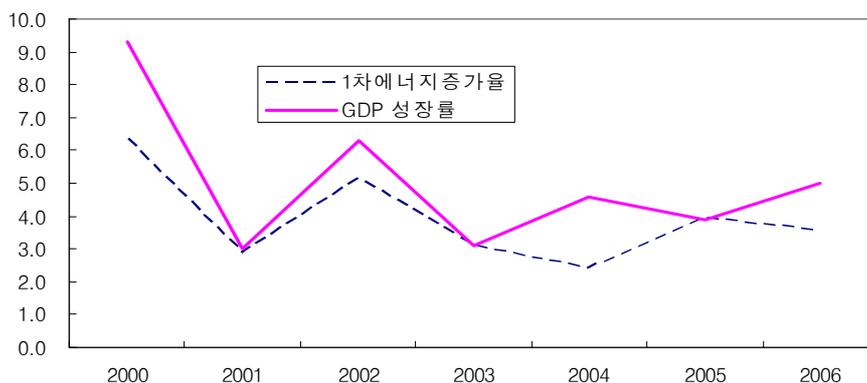
- 2004년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2.4%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05년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한 114.7백만 TOE를 기록
 - 2005년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경기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3.1%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고유가 등 소비 위축요인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총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성장률을 상회하여 GDP 탄성치가 1.4를 기록하였다는 점임.
 - 2000년대 들어 에너지소비 GDP 탄성치는 지속적으로 비탄력적이었으나 금년 상반기에 1을 초과
 - 경기부진과 고유가 상황 하에서의 지속적인 유가상승 등 에너지 소비둔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전연도의 소비부진의 상대적인 영향과 올해 1/4분기의 기후조건으로 인해 난방용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임(난방도일 14% 증가). 에너지원별로는 전력, 도시가스, 열에너지 등의 2차 에너지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환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한데다 원료유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음.
 - 에너지원별 소비를 보면 원자력, 기타에너지의 증가세가 높았으며 석탄, LNG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2005년 상반기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한 87.6백만 TOE를 기록
 - 분기별로 보면 1/4분기는 3.6% 증가하였으며 2/4분기는 다소 낮아진 3.2%로 나타남. 1/4분기 성장률이 2/4분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기후조건이 2004년 1/4분기에는 평년수준보다 따뜻했으며, 2005년 1/4분기는 반대로 평년수준보다 추운데 따른 난방용 에너지소비 증가에 주 원인이 있음.
 - 부문별로는 가정·상업부문의 소비가 2005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7.1%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며 산업용 소비는 경기부진으로 2.0% 증가하는데 그침. 수송용 소비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 하반기 감소세에서 2.4% 증가세로 반전됨.

4 에너지수요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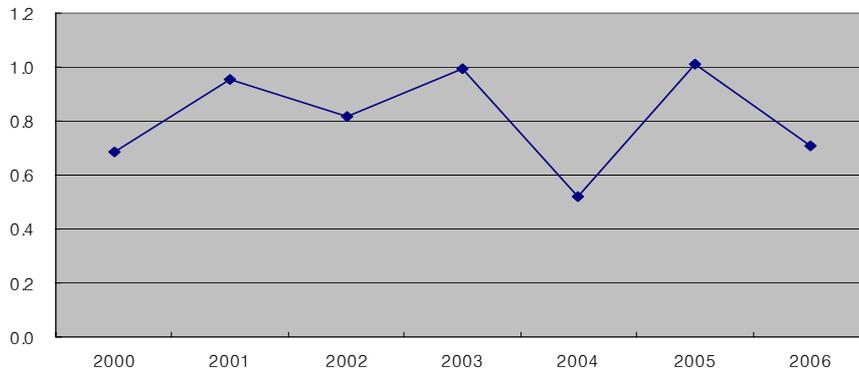
- 총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 전년대비 4.0% 증가한 228.94백만 TOE, 2006년에는 3.5% 증가한 237.06백만 TOE로 전망됨.
- 2005년도 경제성장률이 3.9%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총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05년 1/4분기의 상대적으로 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난방용 에너지수요가 전년 동기대비 크게 늘어난데 주 원인이 있음.
 -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유 수요 증대, 2004년 유가급등에 따른 석유소비 감소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 주 5일제 근무확산에 따른 수송용 연료수요 증가¹⁾ 등도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
- 2006년 총에너지수요는 경제성장률(5.0%) 상승 전망이 반영되었으나, 2005년 수요반등에 대한 상대적 반락효과와 2006년의 연료가격 인상 효과 등으로 인하여 3.5%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대 들어 경제구조가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안정되어 있어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생산활동 변동 또는 기후조건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에너지수요 증가율의 변동이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총에너지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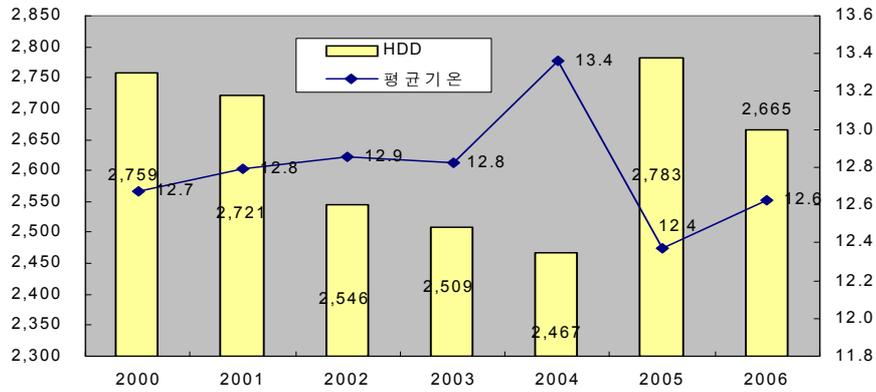


1) 2004년 7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과 금융·보험업·공기업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 2002년 12월초 수도권 지역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통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의 주말 통행중 출근·퇴근·업무통행을 제외한 통행 발생량은 5일 근무제 실시 이전보다 1인당 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교통개발연구원, 「교통」, 2004.7).

총에너지소비의 GDP 탄성치



난방도일 및 평균기온



총에너지 수요 전망

분기	2004					2005e					2006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	4/4	연간	
석탄 (천톤)	20,430 (3.9)	19,478 (1.3)	20,446 (5.1)	21,753 (4.7)	82,116 (3.8)	20,052 (-1.8)	20,015 (2.7)	21,478 (5.0)	22,121 (1.7)	83,666 (1.9)	86,778 (3.7)
석유 (백만bbl)	200.6 (-2.8)	176.6 (0.3)	176.2 (2.0)	199.0 (-4.3)	752.3 (-1.4)	207.4 (3.4)	180.0 (1.9)	175.9 (-0.2)	201.4 (1.2)	764.8 (1.7)	767.9 (0.4)
LNG (천톤)	7,896 (24.6)	4,400 (13.4)	3,504 (21.0)	6,009 (9.3)	21,809 (17.2)	8,263 (4.7)	3,905 (-11.2)	3,903 (11.4)	6,779 (12.8)	22,851 (4.8)	26,136 (14.4)
수력 (TWh)	0.8 (-19.4)	1.2 (-33.1)	2.9 (-2.9)	1.0 (-13.8)	5.9 (-14.9)	0.7 (-8.3)	1.2 (3.8)	2.1 (-28.3)	1.0 (-2.5)	5.0 (-14.6)	5.1 (2.6)
원자력 (TWh)	30.1 (-7.9)	30.8 (8.8)	35.5 (3.1)	34.3 (0.2)	130.7 (0.8)	35.5 (18.2)	37.6 (22.1)	36.5 (2.6)	37.4 (8.9)	147.0 (12.4)	148.8 (1.3)
기타 (천TOE)	911 (20.8)	992 (24.0)	953 (24.4)	1,121 (21.8)	3,977 (22.7)	1,140 (25.2)	1,254 (26.4)	1,202 (26.2)	1,382 (23.3)	4,978 (25.2)	6,012 (20.8)
총에너지 (백만TOE)	59.0 (2.0)	51.0 (3.1)	51.8 (4.6)	58.5 (0.3)	220.8 (2.4)	61.6 (4.5)	53.1 (4.2)	53.2 (2.6)	61.0 (4.3)	228.9 (4.0)	237.1 (3.5)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e는 전망치

□ 2006년도 총에너지 수요를 에너지원별로 보면 원자력 및 석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에너지원이 2005년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

- 2004년에 감소하였던 석유 수요는 2005년에 고유가 상황 및 산업 활동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비 감소에 대한 상대적인 반등 효과와 원료유에 대한 견실한 수요 증가, 주 5일근무제 확대 등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7%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06년에는 2005년 대비 난방용 수요 감소 효과, 원료유에 대한 수요 둔화, 석유제품 가격인상에 따른 가격효과 등이 반영되어 증가율이 2005년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 원자력은 2005년에 올진 5,6호기(2,000MW) 가동에 따라 1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에는 신규 설비증설이 없어 1%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LNG 수요는 2005년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대비 4.8%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원자력 신규설비 가동으로 발전용 수요가 부진한데 기인함. 반대로 2006년에는 발전용 LNG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4%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석탄 수요는 2005년에 산업용 수요 부진에 따라 1.9% 수준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며, 2006년에는 유연탄발전 설비증설에 따라 발전용 수요가 확대되고, 경

기활성화로 산업용 수요도 회복됨에 따라 3.7% 증가할 전망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최종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 3.2%, 2006년에는 2.5%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2005년 상반기 최종에너지수요는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온, 원료유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9%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2006년의 수요 둔화 전망에는 석유화학업의 원료유 수요 둔화, 2005년의 난방용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한 상대적 반락효과,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효과 등이 반영

- 최종 수요부문별로는 2006년 산업부문의 에너지수요증가율이 산업활동 증가로 인해 2005년도 전망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에는 2.3% 수준으로 증가율이 상승할 전망
 - 2004년에 감소하였던 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2005년 및 2006년에 각각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05년은 전년도의 소비 감소에 대한 반등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06년은 산업활동 증가로 경유수요는 확대되겠지만 가격인상 등에 의한 타 연료(휘발유 등)의 수요 감소로 전년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가정·상업·공공부문은 2005년에 상반기의 기온효과의 영향으로 6%대 후반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나, 2006년에는 2005년에 대한 상대적 반락효과로 인하여 3% 이내로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 2006년의 부문별 수요점유율은 산업용의 비중이 55.1%로 가장 높고 수송용은 20.9%, 가정·상업·공공부문은 24.0% 수준으로 전망됨.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구 분	2004					2005e					2006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	4/4	연간	
산 업 (백만TOE)	23.5 (2.2)	22.5 (2.5)	22.6 (3.2)	24.4 (1.8)	93.0 (2.4)	23.9 (2.0)	22.9 (2.1)	22.9 (1.3)	24.8 (1.4)	94.6 (1.7)	96.7 (2.3)
수 송 (백만TOE)	8.3 (1.7)	8.8 (0.5)	8.8 (1.9)	8.7 (-4.0)	34.6 (-0.1)	8.4 (1.0)	9.1 (3.6)	9.0 (2.2)	9.1 (5.1)	35.7 (3.0)	36.7 (3.0)
가·상·공 (백만TOE)	14.0 (0.5)	7.7 (2.8)	6.4 (2.9)	10.3 (-5.7)	38.4 (-0.4)	15.1 (7.8)	8.1 (5.9)	6.7 (5.7)	11.1 (7.2)	41.1 (6.9)	42.1 (2.6)
합 계 (백만TOE)	45.8 (1.6)	38.9 (2.1)	37.8 (2.9)	43.5 (-1.3)	166.0 (1.2)	47.5 (3.6)	40.2 (3.2)	38.7 (2.3)	45.0 (3.5)	171.3 (3.2)	175.6 (2.5)
도시가스 (백만m ³)	6,292 (5.9)	3,167 (7.4)	2,017 (6.4)	3,943 (-0.1)	15,420 (4.7)	6,951 (10.5)	3,426 (8.2)	2,097 (4.0)	4,362 (10.6)	16,835 (9.2)	17,450 (3.7)
석유 (백만bbl)	190.4 (-0.2)	169.9 (0.8)	170.0 (1.7)	189.0 (-3.6)	719.3 (-0.5)	193.9 (1.8)	173.5 (2.2)	171.3 (0.8)	190.9 (1.0)	729.7 (1.4)	731.8 (0.3)
전력 (TWh)	80.2 (5.6)	75.3 (6.0)	78.5 (9.4)	78.1 (4.3)	312.1 (6.3)	84.8 (5.7)	80.1 (6.3)	83.1 (5.9)	83.6 (7.0)	331.6 (6.3)	354.3 (6.8)
석탄 (천톤)	8,451 (-3.2)	8,203 (-2.2)	8,309 (-2.1)	9,286 (1.2)	34,248 (-1.5)	8,351 (-1.2)	7,863 (-4.1)	8,239 (-0.8)	9,469 (2.0)	33,921 (-1.0)	34,788 (2.6)
열/기타 (천TOE)	1,532 (13.6)	1,166 (21.0)	1,022 (21.5)	1,552 (14.3)	5,271 (16.9)	1,872 (22.2)	1,447 (24.1)	1,282 (25.5)	1,853 (19.4)	6,454 (22.4)	7,556 (17.1)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최종에너지 소비를 원별로 보면 전력과 석탄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의 수요증가율이 2005년보다 2006년에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석유소비는 2004년에 경기부진 및 석유제품가격 상승으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가격 효과가 감소하고 전년의 소비부진에 대한 상대적 영향으로 1.4%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에는 원료유 수요 둔화 등으로 0.3%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 전력수요는 2005년에 6.3% 증가할 전망이며, 2006년에는 경제성장률 상승이 반영되어 6.8% 증가할 전망이다. 도시가스는 2005년에 1/4분기의 소비 급증에 힘입어 9.2% 증가할 전망이며, 2006년에는 3%대 후반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 석탄 소비는 2005년 1.0% 감소할 전망이며, 2006년에는 2%대 중반으로 수요가 반등할 전망이다.

I. 국내 에너지 소비 동향

1. 총에너지 소비 동향

- 2004년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2.4%의 낮은 증가에 그쳤으며 2005년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한 114.7백만 TOE를 기록
- 2005년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경기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3.1%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고유가 등 소비 위축요인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총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성장률을 상회하여 GDP 탄성치가 1.4를 기록하였다는 점임.

<표 I-1> 총에너지 소비 동향

분기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
석탄 (천톤)	79,120 (4.2)	20,430 (3.9)	19,478 (1.3)	20,446 (5.1)	21,753 (4.7)	82,116 (3.8)	20,052 (-1.8)	20,015 (2.7)	40,067 (0.4)
석유 (백만bbl)	762.9 (0.0)	200.6 (-2.8)	176.6 (0.3)	176.2 (2.0)	199.0 (-4.3)	752.3 (-1.4)	207.4 (3.4)	180.0 (1.9)	387.4 (2.7)
LNG (천톤)	18,610 (4.7)	7,896 (24.6)	4,400 (13.4)	3,504 (21.0)	6,009 (9.3)	21,809 (17.2)	8,263 (4.7)	3,905 (-11.2)	12,169 (-1.0)
수력 (TWh)	6.9 (29.7)	0.8 (-19.4)	1.2 (-33.1)	2.9 (-2.9)	1.0 (-13.8)	5.9 (-14.9)	0.7 (-8.3)	1.3 (3.8)	2.0 (-1.0)
원자력 (TWh)	129.7 (8.9)	30.1 (-7.9)	30.8 (8.8)	35.5 (3.1)	34.3 (0.2)	130.7 (0.8)	35.5 (18.2)	37.6 (22.1)	73.1 (20.1)
기타 (천TOE)	3,241 (10.8)	911 (20.8)	992 (24.0)	953 (24.4)	1,121 (21.8)	3,977 (22.7)	1,140 (25.2)	1,254 (26.4)	2,394 (25.8)
1차에너지 (백만TOE)	215.1 (3.1)	59.0 (2.0)	51.0 (3.1)	51.8 (4.6)	58.5 (0.3)	220.8 (2.4)	61.6 (4.5)	53.1 (4.2)	114.7 (4.4)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00년대 들어 에너지소비의 GDP 탄성치는 지속적으로 비탄력적이었으나 금년 상반기에 1을 초과

-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조립금속업(전자, 반도체, 통신 등), 서비스업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2000년 이후 에너지 소비의 GDP 탄성치가 경기 상승국면에서 낮아지고 하강국면에서는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경기부진과 고유가 상황 하에서의 지속적인 유가상승 등 에너지 소비 둔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2005년 상반기의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전년도의 소비 부진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과 올해 1/4분기의 기후조건으로 인해 난방용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임(난방도일 14% 증가). 에너지원별로는 전력, 도시가스, 열에너지 등의 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환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유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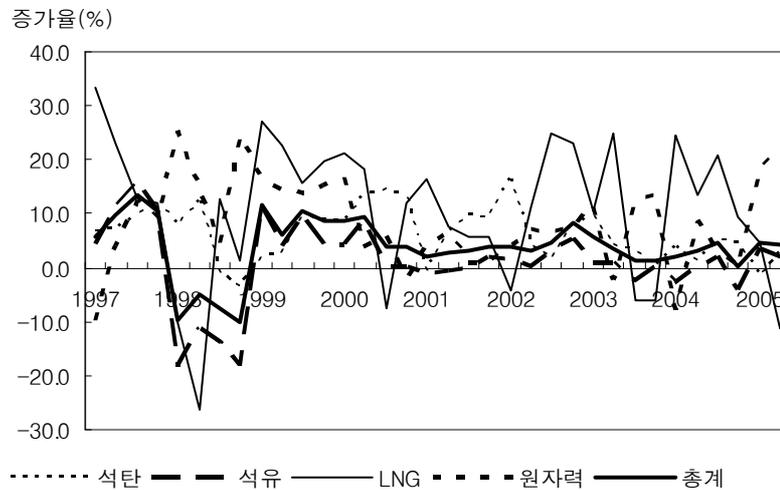
□ 에너지원별 소비를 보면 원자력, 기타에너지의 소비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석탄, LNG는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됨.

- 상반기 석유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한 387.4백만 배럴을 기록함. 고유가 및 유가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처럼 석유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전년 동기의 소비 감소에 대한 상대적 반등효과와 2005년 상반기 중 납사 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 분기별로는 1/4분기에 난방용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비 3.4% 증가하였으나 2/4분기는 1.9%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됨.
- 상반기 석탄 소비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한 40.1백만 톤을 기록. 산업용 유연탄 및 무연탄 소비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고유가로 가정·상업부문 무연탄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발전용 유연탄 소비 증가로 증가세를 유지함. 분기별로는 1/4분기 원자력발전량 증가로 발전용 유연탄 소비가 2.3% 감소되는 등 가정·상업부문의 무연탄 소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세를 보여 석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였음. 2/4분기에는 발전용 유연탄 소비가 7.7% 증가한데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함.

- LNG 소비는 2004년에 17.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도시가스용 LNG 수요가 크게 증가(10.1%)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원자력발전(울진 5,6호기) 가동으로 발전용 LNG 수요가 14.5%나 감소한데 따른 결과임.
- 원자력은 울진 5, 6호기 신규 가동에 힘입어 2005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20.1% 증가함. 이러한 높은 소비 증가율에는 2004년 상반기 일부 원전의 가동 중지에 따른 소비 감소(-0.1%)에 대한 상대적 반등효과도 반영되어 있음.
- 기타 에너지는 2004년 22.7%나 증가한데 이어 2005년 상반기 중에도 전년 동기대비 25.8%의 높은 신장세를 지속

[그림 I-1] 총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 총에너지 소비증가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기여율²⁾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에너지소비 증가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기여

2) 총에너지 소비증가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기여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됨.

$$\text{에너지원별 기여율} = (\text{에너지원별 증가분} \div \text{총에너지증가분}) * 100$$

율을 보면 석탄의 기여율이 30%에서 50% 사이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기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원자력과 LNG의 경우는 발전설비의 신규 가동 여부에 따라 기여율의 등락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지만, 총에너지 소비 증가에 크게 기여해왔음.

- 반면 석유의 경우는 석유화학업 경기변동에 따른 비에너지 소비 변화, 유가변동에 따른 타 연료로의 대체 속도 변화 등에 따라 기여율의 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주목할만한 점은 기타에너지의 기여율이 2004년에 14.2%로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임³⁾.
- 2005년 상반기 에너지 소비 증가 기여율은 원자력이 63.7%로 가장 높았으며, 석유가 27.4%로 뒤를 잇고 있음.
- 2005년 상반기 에너지소비 증가율 4.4%에 대한 원별 기여도를 보면 원자력이 2.8%p, 석유가 1.2%p, 기타에너지 0.4%p로 세 에너지가 상반기 에너지 소비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함.

<표 1-2> 총에너지 소비증가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기여율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상반
석탄	41.3	50.7	33.1	31.4	38.9	2.2
석유	26.1	1.9	19.8	-0.5	-33.7	27.4
LNG	18.0	33.7	22.6	17.0	80.4	-3.4
수력	-1.0	-6.6	2.8	6.1	-5.0	-0.0
원자력	12.8	14.3	17.0	41.1	5.1	63.7
기타	2.8	5.9	4.6	4.9	14.2	1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기타에너지 소비는 경제적인 동인보다는 정책적 동인에 의해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의 높은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에너지 소비 증가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요 예측의 오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2.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 2005년 상반기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한 87.6백만 TOE를 기록
 - 분기별로 보면 1/4분기는 3.6% 증가하였으며 2/4분기는 다소 낮아진 3.2%로 나타남. 1/4분기 성장률이 2/4분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기후조건이 2004년 1/4분기에는 평년수준보다 따뜻했으며, 2005년 1/4분기는 반대로 평년수준보다 추운데 따른 난방용 에너지소비 증가에 주 원인이 있음.
- 부문별로는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소비가 2005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7.1%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며 산업용 소비는 경기부진으로 2.0% 증가하는데 그침. 수송용 소비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 하반기 감소세에서 2.4% 증가세로 반전됨.
 - 산업부문 에너지소비는 생산활동 부진에 따라 2005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2.0%, 2.1% 증가에 그침. 상반기 중 산업부문 석유소비는 원료유 소비증가(5.7%)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하였으나 연료유는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상반기 도시가스 및 전력 소비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6.8%와 4.7% 증가하여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한 반면 유연탄과 무연탄 소비는 각각 3.2%와 12.4% 감소함.
 -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4년 4/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4.0% 감소하였으나 2005년 들어서는 증가세로 반전되어 1/4분기 1.0%, 2/4분기는 3.6% 증가하여 상반기 전체로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고유가 및 유가 상승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소비가 상반기 중 6.5% 증가하여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함. 휘발유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4년 상반기 휘발유 소비가 6.0% 감소한데 따른 상대적인 영향과 주5일제의 확산 및 승용차 대형화 추세 등의 영향으로 판단됨. 수송용 경유는 전년의 수준을 유지함.

- 가정·상업·공공부문은 난방용 연료소비 증가로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2/4분기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원별 에너지소비를 보면, 도시가스 소비가 상반기에 10.1% 증가하였으며, 전력 소비도 상업용 소비가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상반기에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고유가의 영향으로 2004년 4/4분기에 23.2%나 증가한 무연탄 소비는 금년 상반기에 39.9% 증가하는 등 급신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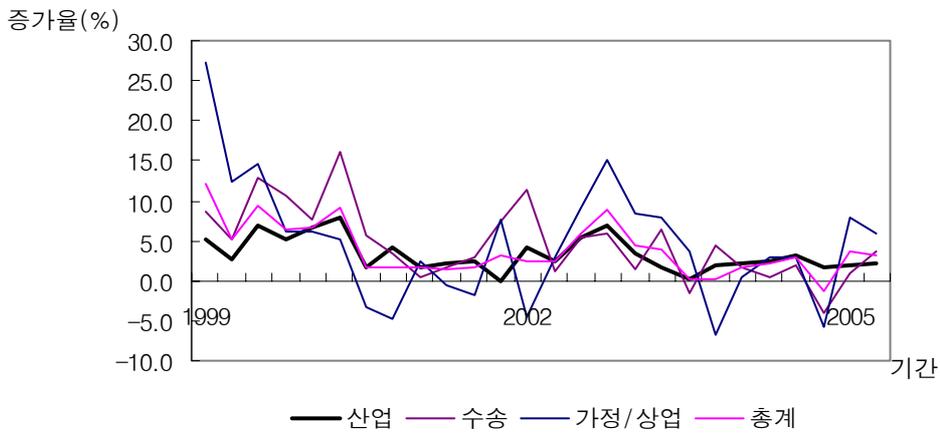
<표 1-3>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구 분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
산 업 (백만TOE)	90.8 (1.8)	23.5 (2.2)	22.5 (2.5)	22.6 (3.2)	24.4 (1.8)	93.0 (2.4)	23.9 (2.0)	22.9 (2.1)	46.9 (2.0)
수 송 (백만TOE)	34.6 (2.6)	8.3 (1.7)	8.8 (0.5)	8.8 (1.9)	8.7 (-4.0)	34.6 (-0.1)	8.4 (1.0)	9.1 (3.6)	17.5 (2.4)
가·상·공 (백만TOE)	38.6 (2.8)	14.0 (0.5)	7.7 (2.8)	6.4 (2.9)	10.3 (-5.7)	38.4 (-0.4)	15.1 (7.8)	8.1 (5.9)	23.2 (7.1)
합 계 (백만TOE)	164.0 (2.2)	45.8 (1.6)	38.9 (2.1)	37.8 (2.9)	43.5 (-1.3)	166.0 (1.2)	47.5 (3.6)	40.2 (3.2)	87.6 (3.4)
도시가스 (백만m ³)	14,734 (6.2)	6,292 (5.9)	3,167 (7.4)	2,017 (6.4)	3,943 (-0.1)	15,420 (4.7)	6,951 (10.5)	3,426 (8.2)	10,376 (9.7)
석유 (백만bbl)	722.7 (0.0)	190.4 (-0.2)	169.9 (0.8)	170.0 (1.7)	189.0 (-3.6)	719.3 (-0.5)	193.9 (1.8)	173.5 (2.2)	367.4 (2.0)
전력 (TWh)	293.6 (5.4)	80.2 (5.6)	75.3 (6.0)	78.5 (9.4)	78.1 (4.3)	312.1 (6.3)	84.8 (5.7)	80.1 (6.3)	164.9 (6.0)
석탄 (천톤)	34,779 (4.6)	8,451 (-3.2)	8,203 (-2.2)	8,309 (-2.1)	9,286 (1.2)	34,248 (-1.5)	8,351 (-1.2)	7,863 (-4.1)	16,214 (-2.6)
열 및 기타 (천TOE)	4,511 (8.7)	1,532 (13.6)	1,166 (21.0)	1,022 (21.5)	1,552 (14.3)	5,271 (16.9)	1,872 (22.2)	1,447 (24.1)	3,319 (23.0)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를 보면 상반기에 도시가스, 열 및 기타에너지는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인 반면 석탄 소비는 2.6% 감소함.
- 상반기 전력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6.0% 증가함. 상업용 소비가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하여 전력소비 증가를 주도
- 도시가스 소비는 1/4분기 10.5%, 2/4분기 8.2% 증가하는 등 상반기 전체로는 9.7%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낮은 증가율에 대한 상대적 영향, 올해 1/4분기의 추운 날씨 등에 기인함.
- 석유 소비는 2004년 하반기에 1.2% 감소하였으나 금년 상반기는 2.0% 증가로 반전됨. 그러나 이는 원료유 소비 증가에 의한 것으로 연료유의 경우는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함.

[그림 1-2]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증가율 추이



- 최종에너지 소비증가분에 대한 기여율
- 최종에너지 소비증가분에 대한 에너지원별 소비증가 기여율을 보면 전력과 도시가스의 기여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석유와 석탄은 기여율의 등락이 심하게 나타남. 이는 석유와 석탄의 경우 특정 산업의 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3. 석유제품 소비 동향

- 2005년도 상반기의 석유제품 소비는 전년동기의 소비 감소에 대한 반등 효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나, 3/4분기 들어 원유가격 상승 등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3/4분기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였음.
- 금년 1/4분기에 3.4%의 높은 수요 증가를 보였으나, 이후 국제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석유수요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여 3/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표 1 -5>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 동향

(단위: 백만 bbl)

구분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수 송	249.6 (2.3)	59.8 (1.5)	63.4 (0.2)	63.5 (1.8)	62.4 (-4.1)	249.1 (-0.2)	60.6 (1.3)	65.5 (3.2)	64.8 (2.1)
산 업	374.7 (-0.1)	97.7 (2.3)	90.8 (2.1)	93.6 (3.5)	101.0 (1.2)	383.1 (2.2)	100.1 (2.4)	93.3 (2.8)	93.7 (0.1)
- 연료	97.2 (-9.3)	25.7 (-3.8)	22.1 (-1.2)	20.5 (-2.4)	24.2 (-10.7)	92.5 (-4.8)	24.1 (-6.1)	20.6 (-6.8)	18.7 (-8.8)
- 원료	277.5 (3.6)	72.0 (4.7)	68.6 (3.2)	73.1 (5.3)	76.8 (5.6)	290.6 (4.7)	75.9 (5.5)	72.7 (5.8)	74.9 (2.5)
가정·상업·공공	98.4 (-4.8)	32.9 (-9.6)	15.7 (-4.3)	12.9 (-10.0)	25.6 (-18.1)	87.1 (-11.5)	33.3 (1.0)	14.8 (-5.8)	12.9 (-0.2)
전 환	40.3 (-0.7)	10.2 (-34.6)	6.7 (-9.4)	6.2 (12.2)	9.9 (-15.6)	33.0 (-18.0)	13.5 (33.0)	6.4 (-3.8)	4.6 (-26.5)
석유계	762.9 (0.0)	200.6 (-2.8)	176.6 (0.3)	176.2 (2.1)	199.0 (-4.3)	752.3 (-1.4)	207.4 (3.4)	180.0 (1.9)	175.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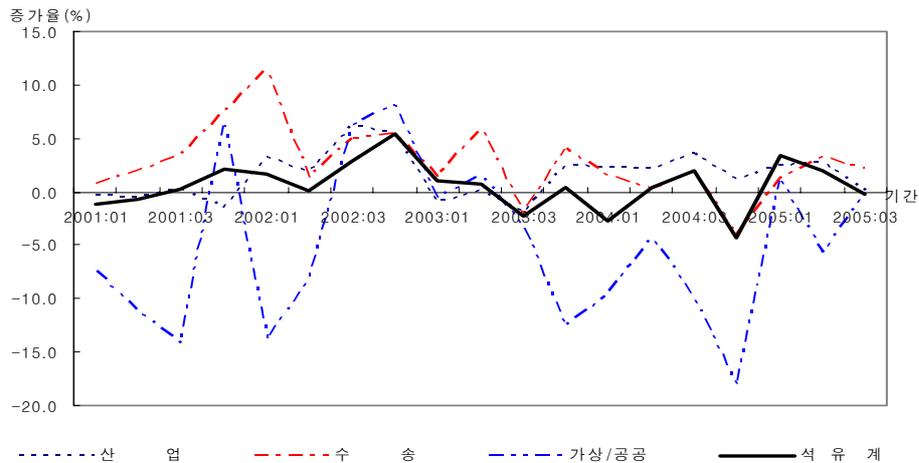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 부문별로는, 산업부문 연료소비의 감소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전환부문의 경우 원자력의 신규설비 가동 등의 영향으로 금년 3/4분기에는 26%대의

감소를 보임. 하지만 2005년 3/5분기에 가장 큰 소비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원료와 수송의 석유수요가 올해의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석유 소비를 보임.

- 수송부문의 경우, 석유제품 가격인상의 효과와 산업생산 증가의 효과가 유종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현상을 보임.
- 산업부문 연료수요 감소세는 올 3/4분기에 더 큰 폭으로 이어져 전년 동기대비 8.8%가 감소됨. 3/4분기 산업부문 원료 수요도 상반기에 비해 증가속도가 둔화되었지만, 2.5%로 안정적 증가를 하면서 산업부문 전체 석유 수요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함.

[그림 1 -3]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 3/4분기 가정·산업·공공부문 석유제품 소비는 석유제품가격 인상으로 수요감소가 지속되었으나, 전년 동기의 석유수요 급락으로 인해 동기대비 감소율은 다소 둔화됨.
- 올진 5, 6호기 가동으로 인한 원자력의 증가와 LNG, 석탄 등의 발전용 수요 확대로 3/4분기 전환부문 석유제품 수요는 -26.5%의 큰 감소를 나타냄.

- 2005년 3/4분기의 주요 제품별 소비동향을 살펴보면, 산업생산과 관련된 납사 및 수송경유의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휘발유의 소비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감소함.
- 휘발유 수요는 2005년 전반기 증가 추세로 반전되었으나, 3/4분기 들어 국제원유가격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면서 -4.0%로 크게 감소하였음.
- 수송용 경유 수요는 고유가와 세금조정으로 인한 상대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가 회복되면서 0.8%의 증가를 보임.

<표 I -6> 주요 석유제품 소비 동향

(단위: 백만 b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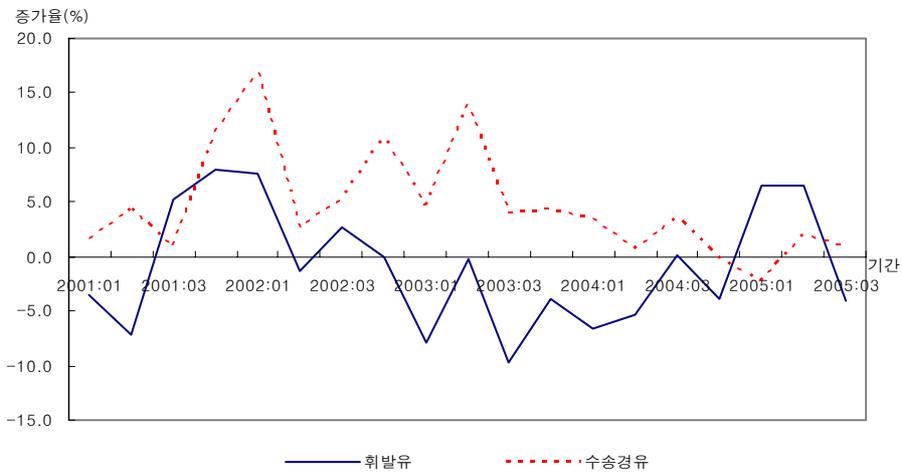
구 분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휘 발 유	60.5 (-5.6)	13.4 (-6.6)	14.1 (-5.4)	15.9 (0.1)	14.7 (-4.0)	58.1 (-3.9)	14.3 (6.4)	15.1 (6.6)	15.2 (-4.0)
수송경유	110.1 (6.7)	26.5 (3.3)	29.7 (0.7)	26.8 (3.5)	29.0 (-0.2)	112.0 (1.8)	25.9 (-2.2)	30.3 (1.9)	27.0 (0.8)
등유+경유 (발전용 포함)	88.1 (-5.6)	28.2 (-17.8)	13.0 (-3.8)	11.0 (-14.8)	22.6 (-17.4)	74.8 (-15.1)	26.4 (-6.4)	11.9 (-8.6)	10.6 (-3.9)
중 유 (발전용 포함)	115.8 (-4.7)	31.5 (-6.8)	23.8 (-8.3)	21.8 (-6.6)	27.9 (-14.8)	105.0 (-9.4)	32.9 (4.6)	22.8 (-4.1)	20.0 (-8.5)
납 사	252.4 (2.9)	66.3 (3.5)	61.4 (2.0)	66.7 (5.3)	68.5 (5.6)	262.9 (4.1)	70.6 (6.5)	65.7 (7.1)	68.3 (2.4)
L P G (발전용 포함)	88.6 (-3.1)	23.3 (-3.1)	21.8 (5.9)	20.6 (4.8)	22.6 (-6.6)	88.4 (-0.2)	24.5 (4.9)	20.8 (-4.8)	21.0 (2.0)

주) 등유+경유: 경유(수송용 제외),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 소비량의 합.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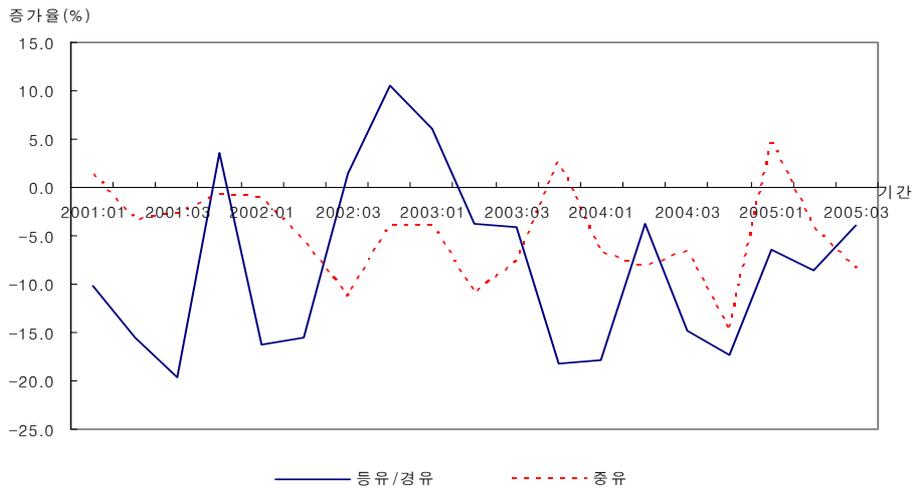
- 등·경유(수송경유 제외) 수요는 고유가에 의한 연료대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해 감소폭이 컸던 탓에 수요 하락율은 다소 둔화됨.
- 중유 수요는 신규발전 가동 영향으로 발전용 수요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에 비해 -8.5% 하락함.

- 납사는 석유화학산업의 경기 호조에 도 불구하고 3/4분기의 소비가 2.4% 증가하여 전반기에 비해 증가속도가 급속히 줄어들었음.
- LPG 소비는 상반기에 0.2% 증가하고 3/4분기는 2.0%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다소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1-4] 주요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1)



[그림 1-5] 주요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2)



4. 전력 소비 동향

- 2005년 3/4분기까지의 누적 전력소비는 248.0 TWh로 집계되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증가함.
 - 2005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3.1%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비는 상업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시현함.
 - 분기별로는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하였으며 2/4분기 및 3/4분기에는 각각 6.3%, 5.9% 증가하였음.
 - 부문별로는 상업용이 2005년 1/4분기~3/4분기 동안에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하여 전력소비 증가를 주도하였음. 반면 산업용 및 가정용 소비는 같은 기간 중 모두 4.9% 증가하는데 머물렀음.

<표 1-7> 전력소비 동향

(단위 : TWh)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가정용	44.6 (5.4)	12.5 (7.2)	11.5 (7.2)	12.7 (11.8)	11.9 (10.1)	48.6 (9.1)	13.0 (4.5)	12.2 (5.6)	13.3 (4.5)
상업용	98.6 (7.5)	29.1 (6.6)	24.3 (6.6)	26.3 (11.2)	25.5 (2.2)	105.1 (6.6)	31.5 (8.5)	26.3 (8.4)	28.3 (7.3)
산업용	150.4 (4.1)	38.6 (4.3)	39.5 (5.3)	39.5 (7.6)	40.7 (4.0)	158.3 (5.3)	40.2 (4.0)	41.6 (5.3)	41.6 (5.5)
총계	293.6 (5.4)	80.2 (5.6)	75.3 (6.0)	78.5 (9.4)	78.1 (4.3)	312.1 (6.3)	84.8 (5.7)	80.1 (6.3)	83.1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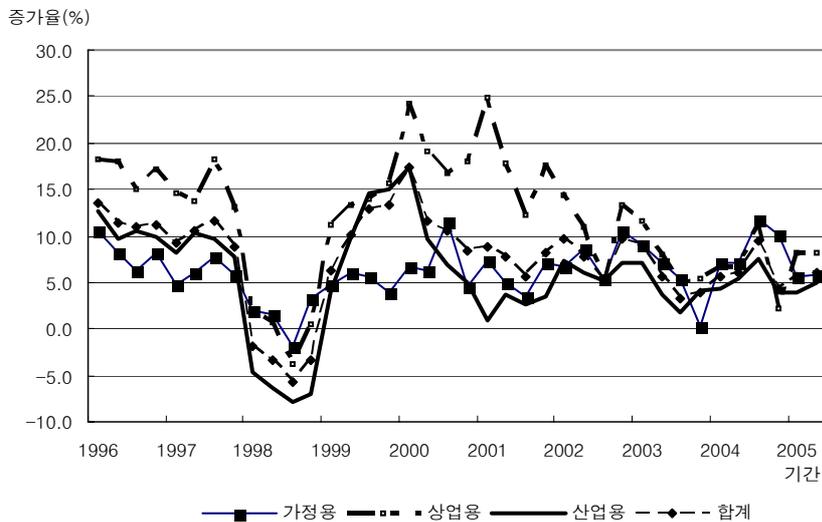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3/4분기 총계는 잠정실적치이나, 부문별 소비는 추정치임

- 2005년 상반기 상업용 전력 소비는 8.4% 증가하여 전력소비 증가세를 주도하였으며, 3/4분기에는 증가율이 7.3%로 다소 둔화됨.
 - 가정용 전력소비는 1/4분기 4.5%, 2/4분기 5.6% 증가하였으나 3/4분기에는 4.5%로 증가율이 둔화됨. 여기에는 전년도 3/4분기의 높은 소비

증가(11.8%)에 대한 상대적인 반락효과가 반영되어 있음.

- 산업용 전력수요는 상반기에는 경기부진의 영향(상반기 경제성장률 3.1%)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3/4분기에 경제성장률 상승(4.6% 추정)을 반영하여 5.5% 증가하였음. 3/4분기까지의 누적 소비는 4.9% 증가함.

[그림 1-6]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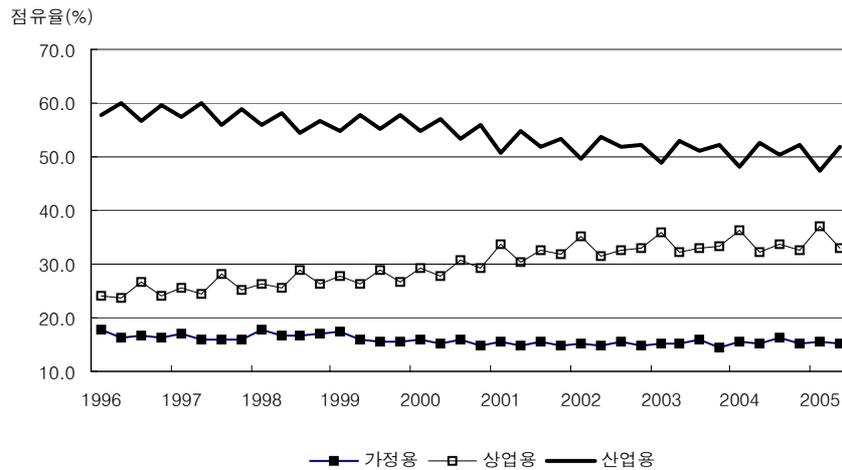


□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은 상업용은 상승하고 산업용의 비중은 하락함

- 전체 전력소비 중 상업용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2.1%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은 33.7%까지 높아졌으며, 2005년에도 상반기 전체로는 35.1%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가정용 전력소비의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에 소폭 증가하고, 1999년에 소폭 감소한 후, 2000년대 들어서는 15% 초반의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음. 2004년에 15.6%로 전년보다 약간 상승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에도 15.3% 수준을 유지

- 반면 산업용 전력소비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2003년에는 51.2%, 2004년은 50.7%까지 감소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는 경기 부진으로 49.6%를 기록

[그림 1-7]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 추이



- 2005년 9월까지의 최대부하는 54,631MW(8월17일)이었으며 평균부하는 41,044MW로 부하율은 75.1%를 기록함. 이는 2004년 동기의 75.6%보다 0.5% 포인트 낮은 결과임.
- 2005년 월별 평균부하는 1월이 43,652MW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3월의 순으로 나타남.

5. LNG 및 도시가스 소비 동향

- 2004년 LNG 소비는 전년대비 17.2% 증가한 21,809천 톤을 기록함
 - 분기별로는 1/4분기와 3/4분기에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4분기에는 10%대, 4/4분기는 9%대의 증가율을 보여 분기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남. 이는 발전용 소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데 따른 결과임

- 2005년 1/4분기 LNG 소비는 4.7%의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2/4분기에는 -11.2%의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울진 원전 5,6호기 설비가 가동되어 발전용 수요가 크게 감소한데 기인함.
 - 원자력 발전의 경우 1/4분기와 2/4분기 때 각각 18.2%와 22.1%로 급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동분기의 LNG의 발전용 소비가 -6.8%와 -24.4%로 큰 감소세를 나타냄.

- 2004년 발전용 LNG 소비는 전년대비 36.3%의 급증가세를 보임.
 - 이와 같은 발전용 소비의 급증세는 1/4분기에 영광 원전 5,6호기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발전용 수요가 81.5%나 증가하였고 3/4분기의 고온 현상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임. 또한 2003년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한데 따른 상대적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1/4분기 발전용 LNG 소비는 전년대비 -6.8%, 2/4분기는 -24.4%의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냄.
 - 울진 원전 5,6호기의 가동에 따라 원자력이 1/4분기와 2/4분기 각각 35,507 GWh와 37,631 GWh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2%, 22.1% 증가함에 따라 발전용 LNG 소비가 급격히 감소한데 따른 결과이며 2004년 동 분기 소비급증에 따른 상대적인 효과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1/4분기 도시가스용 LNG소비는 기후 요인으로 인해 전년대비 12.5%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05년 1/4분기의 12.5%의 높은 증가율은 기온이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매우 낮았던데 기인함.
 - 또한 2005년에 접어들면서 낮아진 도시가스 가격도 수요 증가의 한 원인으로 판단됨.

<표 I-8> LNG 소비 동향

(단위: 천톤)

	2003	2004				2005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
도시가스용	11,978 (7.0)	4,999 (5.3)	2,169 (8.0)	1,577 (5.9)	3,759 (0.7)	12,504 (4.4)	5,623 (12.5)	2,268 (4.6)	7,891 (10.1)
발전용	6,468 (-0.6)	2,729 (81.5)	2,137 (15.7)	1,839 (31.7)	2,113 (22.7)	8,818 (36.3)	2,545 (-6.8)	1,616 (-24.4)	4,161 (-14.5)
L N G 계	18,610 (4.7)	7,896 (24.6)	4,400 (13.4)	3,504 (21.0)	6,009 (9.3)	21,809 (17.2)	8,263 (4.7)	3,905 (-11.2)	12,169 (-1.0)

- 주) 1.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2. LNG계는 자체소비가 포함된 1차 에너지 총량을 의미함.
 3. 발전용 LNG에는 지역난방 및 자가발전 LNG 투입량도 포함되어 있음.

- 2004년 도시가스 소비는 15,420백만 m^3 로 전년도 대비 4.7% 증가하여 예년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줌.
- 2004년 도시가스 소비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다소 둔화된 것은 경기부진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의 영향과 4/4분기의 온난한 기후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4/4분기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0.1% 감소함.
- 2005년 1/4분기와 2/4분기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각각 10.5%, 8.2%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견조한 증가세를 보여줌.
- 2005년 1/4분기에는 매우 낮은 기온을 보여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2/4분기 역시 2004년 2/4분기 7.4%와 비교하여 조금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도시가스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고려됨.
- 2004년 가정부문의 도시가스 소비는 1.1% 증가에 그쳤으나 상업부문의 소비가 11.5%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연간 4.7%의 소비 성장을 견인함.
-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는 상반기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고온 현상으로 3/4분기와 4/4분기 모두 감소세로 전환됨.

- 상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4/4분기를 제외하고는 10%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4/4분기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졌으나 전반적으로 5%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

< 표 1-9 > 도시가스 소비 동향

(단위: 백만m3)

	2003	2004				2005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기
가 정 용	8,126 (5.3)	3,945 (4.0)	1,629 (4.8)	541 (-6.7)	2,103 (-4.3)	8,218 (1.1)	4,266 (8.1)	1,736 (6.5)	6,002 (7.7)
상 업 용	2,437 (10.4)	1,034 (12.8)	501 (14.1)	529 (17.6)	654 (3.7)	2,718 (11.5)	1,265 (22.3)	581 (16.0)	1,847 (20.3)
산 업 용	3,978 (4.8)	1,223 (4.9)	964 (5.6)	873 (6.4)	1,113 (3.1)	4,174 (4.9)	1,325 (8.3)	1,013 (5.0)	2,337 (6.8)
도시가스계	14,734 (6.2)	6,292 (5.9)	3,167 (7.4)	2,017 (6.4)	3,943 (-0.1)	15,420 (4.7)	6,951 (10.5)	3,426 (8.2)	10,387 (9.7)

주) 1.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2. 도시가스계에는 열병합발전 및 수송용에 사용된 물량이 포함되어 있음.

- 2005년 상반기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과 비교하여 9.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1/4분기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난방도일이 매우 높음에 따라 전 부문에 걸쳐 도시가스 소비가 급증하였음.
 - 2/4분기에는 국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대체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가수의 증가폭이 전년대비 높게 나타남에 따라 8.2%의 증가율을 나타냄.
- 2005년 상반기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는 7.7%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1/4분기에는 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난방도일이 전년 동기 대비 높은

폭으로 증가하여 수요가수는 5.7% 증가하는데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소비는 8.1%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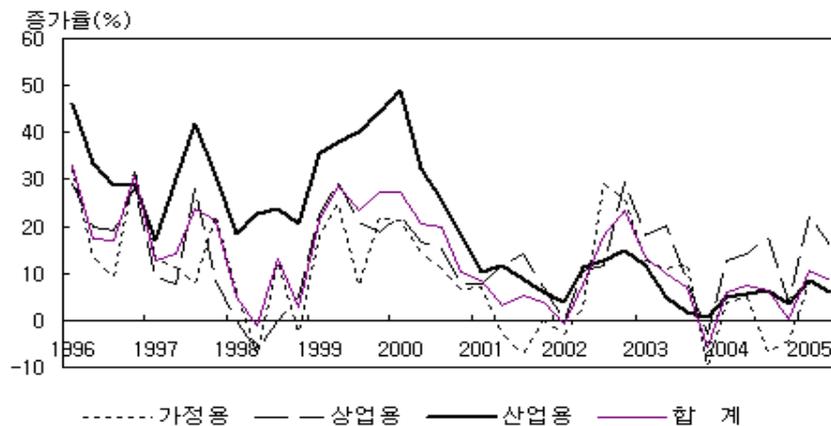
□ 상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2005년 상반기에 20.3%의 소비 증가율을 나타내며 전년동기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상업용 도시가스는 서비스 업종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25% 정도의 수요가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 1/4분기는 기온 영향에 의해 22.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2/4분기에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16.0%의 소비 증가율을 나타냄.

□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2005년 상반기 산업활동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후적 영향에 의해 6.8%의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냄.

- 1/4분기에는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분야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5%대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기온 영향과 10%대의 높은 수요가수 증가에 의해 8.3%의 높은 도시가스 소비 증가율을 실현하였음.
- 2/4분기는 15%대 이상의 수요가수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제조업종 부가가치 증가율은 5.1%의 둔화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5.0%의 증가율을 나타냄.

[그림 1-8] 도시가스 소비증가율 추이



- 지속적인 도시가스 보급정책을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수요가수는 11,180 천개에 이룸
 - 가정용의 경우 증가세가 많이 안정화 되어 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업용은 여전히 25%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연료대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산업용의 경우 2004년까지 10% 이내의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05년에 접어들면서 10% 후반대의 높은 수요가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6. 석탄 및 기타에너지 소비 동향

- 2005년 상반기 석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한 4,007만 톤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 유연탄 소비는 0.9% 증가한 반면 무연탄 소비는 4.7% 감소하였음.
 - 발전용 유연탄 소비가 석탄 소비 증가세를 주도하였으며, 가정·상업용 무연탄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임.
 - 2005년 1/4분기 석탄소비는 가정·상업용 무연탄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1.9%의 소비감소율을 기록하였음. 1/4분기에 유연탄은 1.9%, 무연탄은 1.7% 감소하였음.
 - 2005년 2/4분기의 석탄소비는 발전용 유연탄과 가정·상업용 무연탄의 소비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7%의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특히, 가정·상업용 무연탄 소비가 대체연료(등유)에 대한 상대가격 하락 효과로 인하여 크게 늘어난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임.

<표 1-10> 석탄 소비 동향

(단위: 천톤)

구 분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
무연탄계	8,581 (11.6)	2,145 (-7.2)	1,735 (-11.1)	1,907 (6.1)	2,351 (-6.7)	8,137 (-5.2)	2,109 (-1.7)	1,587 (-8.5)	3,696 (-4.7)
가정·상업	1,191 (1.3)	340 (-9.8)	117 (6.4)	160 (14.3)	768 (36.2)	1,385 (16.3)	539 (58.5)	178 (52.1)	717 (56.9)
산업	4,680 (18.4)	1,122 (-12.7)	941 (-10.7)	1,152 (8.2)	1,182 (-7.4)	4,396 (-6.1)	1,053 (-6.2)	761 (-19.1)	1,814 (-12.1)
발전	2,710 (5.9)	683 (5.2)	677 (-14.1)	595 (0.3)	401 (-41.0)	2,356 (-13.1)	517 (-24.3)	648 (-4.3)	1,165 (-14.3)
유연탄계	70,539 (3.3)	18,284 (5.4)	17,753 (2.7)	18,540 (5.0)	19,402 (6.3)	73,978 (4.9)	17,942 (-1.9)	18,428 (3.8)	36,370 (0.9)
제철	20,509 (2.0)	5,168 (2.5)	5,162 (1.6)	5,198 (0.0)	5,311 (2.4)	20,839 (1.6)	5,092 (-1.5)	4,975 (-3.6)	10,067 (-2.5)
시멘트	6,060 (6.9)	1,184 (-15.5)	1,457 (-9.4)	1,253 (-18.2)	1,415 (-6.9)	5,309 (-12.4)	1,033 (-12.8)	1,398 (-4.0)	2,431 (-7.9)
기타산업	2,339 (-0.7)	636 (1.8)	527 (-1.0)	547 (-1.9)	609 (-2.6)	2,318 (-0.9)	633 (-0.5)	551 (4.6)	1,184 (1.8)
발전	41,631 (3.7)	11,296 (9.9)	10,607 (5.4)	11,542 (11.4)	12,067 (10.5)	45,512 (9.3)	11,184 (-1.0)	11,504 (8.5)	22,688 (3.6)
석탄계	79,120 (4.2)	20,430 (3.9)	19,487 (1.3)	20,446 (5.1)	21,753 (4.7)	82,116 (3.8)	20,052 (-1.9)	20,015 (2.7)	40,067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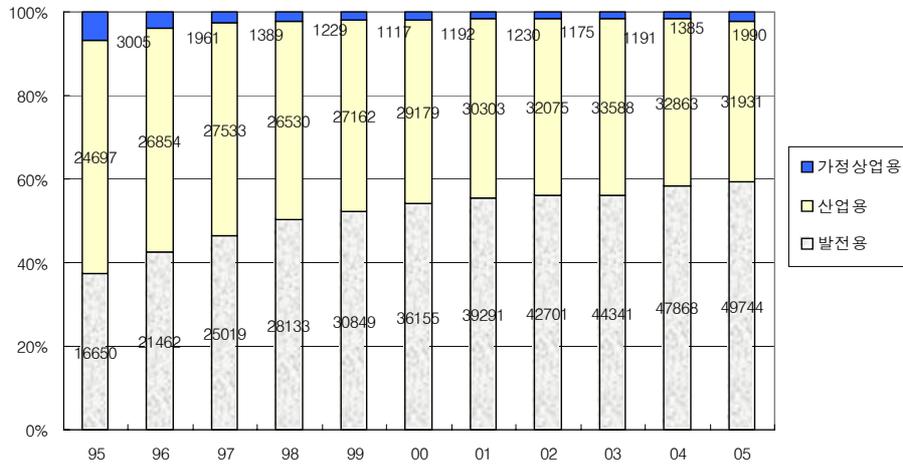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 석탄소비를 용도별로 보면, 2004년 기준 전체 석탄소비의 59.2%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용 소비가 2005년 상반기에 2.5% 증가한 반면, 최종 수요부문의 소비는 2.6% 감소하였음.

- 발전용의 소비비중은 전력수요 증가 및 유연탄 발전설비 증설과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산업용의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임.

[그림 1-9] 용도별 석탄소비 및 점유율 추이

(단위: 천TOE)



□ 2005년 상반기의 무연탄 소비는 가정·상업용 소비의 급증(56.9%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및 발전용 소비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4.7%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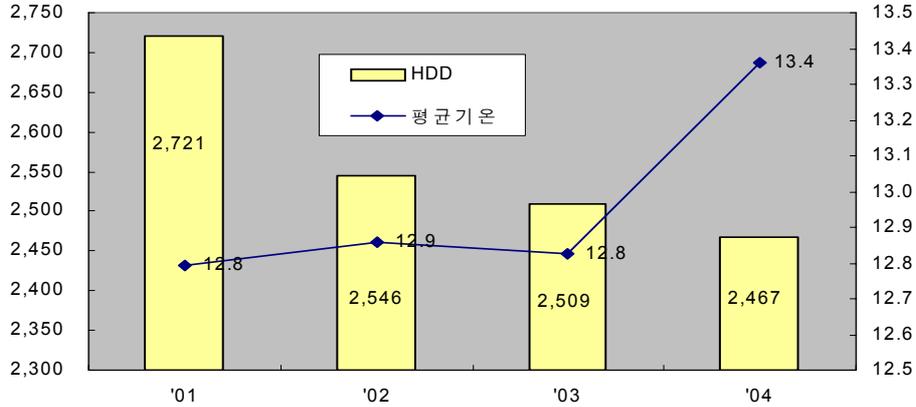
- 발전용 무연탄 소비는 2004년 4/4분기의 감소(-41.0%)에 이어 2005년 상반기에도 14.3% 감소하였음. 특히 1/4분기에는 24.3%의 높은 소비감소율을 기록하였음. 이는 원전 울진 5, 6호기가 각각 2004년 하반기, 2/4분기에 신규 가동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상반기 가정·상업용 무연탄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56.9% 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이는 경기둔화 지속 및 등유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서민용 연료로서 가격규제를 받고 있는 연탄의 경제성이 크게 부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소비 증가추세는 고유가 지속과 함께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1997년 이후 2003년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던 산업용 무연탄 소비는 2004년에는 6.1% 감소한데 이어 2005년 상반기에도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5년의 상반기 유연탄 소비는 발전용 소비의 견조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철용 및 시멘트 제조용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0.9% 증가하는데 머물렀음.
- 2005년 상반기의 발전용 유연탄 소비는 2004년 하반기 설비증설(영흥석탄 1·2호기, 1,600MW)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하였음. 1/4분기에는 소비가 1.0%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는 8.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제철용 유연탄 소비는 2005년 상반기에 2.5% 감소하였음. 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2고로가 개보수로 인하여 1/4분기~2/4분기에 걸쳐 총 66일간 가동이 중지된데 크게 기인함.⁴⁾ 또한 포스코가 세계 철강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급강 생산량을 조절하려는 전략도 제철용 소비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상반기의 시멘트 생산용 유연탄 소비는 7.9% 감소하였음. 이는 국제 석탄가격 급등 및 시멘트제품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주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1/4분기에는 12.8 감소하였으며, 2/4분기에는 -4.0%로 감소세가 둔화되었음.
 - 주로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의 연료로 이용되는 기타산업용 유연탄은 2005년 상반기에 1.8% 증가하였음.
- 열에너지소비는 2005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13.0% 증가하였음. 이는 2005년 1/4분기의 소비가 온화한 날씨를 보였던 전년 1/4분기에 비해 15.8%로 크게 반등한데 따른 것임.
- 열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상업용 소비는 2005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공공·기타용은 21.4%나 증가하였음.

4) 광양제철소 2고로는 2005년 3월14일부터 66일간 개수작업을 마치고 5월20일부터 조업에 들어감. 2고로는 개수작업을 통하여 설비능력이 15% 확대되었으며, 연간 생산량이 종전보다 45만 톤 늘어난 35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10] 난방도일 및 평균기온 추이

(단위: 1hdd, °C)



□ 2005년 상반기의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25.8% 증가한 239만 TOE를 기록하였음.

-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가 총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5%에서 2004년에는 1.8%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신재생/기타에너지 소비는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증가, 발전차액제도와 공공부문 의무화제도 등의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량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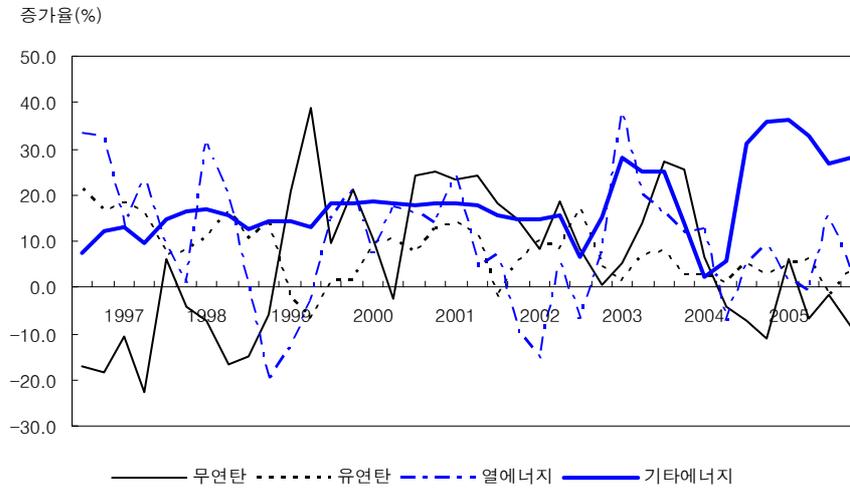
<표 1-11> 열에너지·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소비 추이

(단위: 천TOE)

구분	2003	2004					2005p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
열에너지	1,300 (6.3)	632 (4.8)	186 (9.0)	83 (1.4)	442 (-0.7)	1,343 (3.3)	731 (15.8)	193 (3.6)	924 (13.0)
신재생/기타	3,241 (10.8)	911 (20.8)	992 (24.0)	953 (24.4)	1,121 (21.8)	3,977 (22.7)	1,140 (25.2)	1,254 (26.4)	2,394 (25.8)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그림 I-11] 석탄 및 기타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Ⅱ. 국내경제 및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

1. 국내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근의 경제동향

□ 개요

- 통계청의 2005년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9월 산업활동은 생산과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는 감소하였음.
- 9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7.2%, 5.4% 증가하였고, 소비재 판매는 0.8%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8월: 6.1% 증가). 9월 설비투자는 2.0% 감소, 건설기성은 3.8% 증가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p 하락하였으나, 앞으로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에 비해 0.3%p 상승

□ 생산

- 9월 산업생산지수는 132.1(2000=100)로 자동차, 사무회계용 기계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7.2% 증가, 3/4분기로는 6.9% 증가함. 제조업 ICT지수는 23.0% 증가
- 9월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28.3(2000=100)으로 전년 동월대비 5.4% 증가, 3/4분기로는 6.0% 증가함. 내수출하는 2.8% 증가, 3/4분기로는 4.6% 증가. 수출출하는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증가하여 9.1% 증가, 3/4분기로는 8.0% 증가
- 9월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23.8(2000=100)로 자동차, 섬유제품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제1차금속,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6.7% 증가. 전월에 비해서는 기계장비,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여 2.5% 증가

<표 II-1> 최근의 경제동향

(전년동기(월)비, %)

		2004년			2005년				
		9월	4/4	연간	2/4	3/4p	7월	8월p	9월p
생산	생 산	10.0	6.7	10.4	4.0	6.9	6.9	6.4	7.2
	· 제 조 업 (중 화 학)	10.3	7.0	10.7	3.9	7.0	7.2	6.6	7.3
	(경 공 업)	13.0	9.4	14.0	5.6	9.1	9.5	8.6	9.2
		0.1	-2.2	-0.8	-2.9	-1.1	-2.0	-0.9	-0.4
	출 하	8.3	5.8	9.1	3.5	6.0	6.4	6.3	5.4
	· 내 수	1.5	0.3	2.9	1.4	4.6	6.5	4.5	2.8
	· 수 출	19.5	15.0	20.0	6.8	8.0	6.1	8.8	9.1
	재 고	5.2	9.4	9.4	7.9	6.7	8.5	5.4	6.7
	평균가동률	79.8	80.4	80.3	79.0	79.4	80.5	78.6	79.0
	생 산 능 력	5.5	4.8	4.8	2.3	2.6	2.4	2.5	2.9
소비	도·소매판매	0.6	0.2	-0.3	3.2	3.7	4.8	6.1	0.8
	내수용소비재출하	-2.9	-4.0	-2.4	1.2	6.2	6.1	6.9	5.5
투자	설 비	1.5	0.1	1.4	1.4	0.5	4.2	-0.7	-2.0
	설 비	-8.4	-5.4	6.8	-12.2	13.6	25.4	18.4	-0.3
	건 설	19.7	4.4	11.0	10.3	4.6	5.0	5.0	3.8
	건 설	-24.7	28.8	-5.3	40.5	16.7	7.6	18.3	28.5
물가	소비자물가	3.9	3.4	3.6	3.0	2.4	2.5	2.0	2.7
	생산자물가	7.5	6.5	6.1	2.2	1.7	2.0	1.4	1.6
경기	동행지수(전월비, %)						0.6	0.5	0.1
	· 순 환 변 동 치						96.4	96.4	95.9
	· 순환변동치전월차(p)						0.1	0.0	-0.5
	선행지수(전월비, %)	-	-	-	-	-	0.5	0.6	0.4
	· 전년동월비(%)						2.0	2.7	3.0
	· 전 월 차(%p)						0.4	0.7	0.3

주) 재고는 월(기)말기준, p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2005년 9월 및 3/4분기), 2005. 10

통계청, 2005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2005. 11

한국은행, 2005년 10월 생산자물가 동향, 2005. 11

- 9월 가동률지수는 98.3(2000=100)으로 영상음향통신 등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비금속광물, 섬유제품 등이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0.2% 감소, 3/4분기로는 0.4% 증가. 전월에 비해서는 기계장비, 기타운송장비 등이 증가하여 0.6% 증가
- 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0.4%p 증가한 79.0%를 나타냄. 생산능력지수는 119.0으로 전년 동월대비 2.9% 증가

□ 투자

- 9월 설비투자는 91.8(2000=100)로 특수산업용 기계 및 자동차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2.0% 감소, 3/4분기로는 0.5% 증가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기기계 및 조립금속제품 등의 출하가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0.6% 증가, 3/4분기로는 2.2% 증가
- 9월 국내 기계수주(경상금액)는 민간발주는 증가하였으나 공공발주가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0.3% 감소, 3/4분기로는 13.6% 증가. 공공부문은 전력업 및 정부 등에서 핵반응기 및 데스크탑PC 등의 발주가 감소함. 민간부문은 운수창고통신 및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도로주행차량 및 통신기계 등의 발주가 증가
- 9월 국내 건설기성(경상금액)은 공공부문은 감소한 반면, 민간발주 공사실적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3.8% 증가, 3/4분기로는 4.6% 증가. 공종별로 보면, 건축공사는 주거용 건축에 힘입어 7.8% 증가하였으며, 토목공사는 플랜트 등이 감소하여 3.6% 감소
- 9월 국내 건설수주(경상금액)는 공공부문은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28.5% 증가, 3/4분기로는 16.7% 증가. 공공부문은 철도·궤도, 항만·공항 등이 감소하였고, 민간부문은 주택, 사무실 등이 증가

□ 소비

- 9월 소비재판매액지수(불변)는 119.5(2000=100)로 내구재와 비내구재는

감소하였으나, 준내구재가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0.8% 증가, 3/4분기로는 3.7% 증가

- 내구재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분규로 승용차 판매가 부진하여 1.0% 감소하였고 준내구재는 의복·신발·가방, 운동·오락용품 등의 판매호조로 8.2% 증가. 비내구재는 추석의 소비수요가 전월에 분산된 데다, 짧은 추석연휴와 고유가로 인한 차량운행 자제여파로 차량 연료판매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1.5% 감소
- 9월 백화점의 판매는 3.7% 증가함. 귀금속과 서적·문구의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매장특화로 의복, 운동오락용품, 화장품 등에서 증가. 점포수는 전년에 비해 5개(82개→77개)로 감소
- 9월 대형할인점의 판매는 5.6% 증가함. 점포수가 전년에 비해 15개(269개→284개) 증가하고, 9월부터 담배판매 허용 등으로 증가

□ 경기종합지수

- 9월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수출액 등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1% 증가.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5.9로 전월보다 0.5p 감소
- 9월 선행종합지수는 종합주가지수, 건축허가면적 등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4% 증가. 향후의 경기전환시기를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3.0%로 전월에 비해 0.3%p 증가

나. 국내경제 전망

-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전망(2005. 10)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2005년에 3%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6년에는 내수의 본격적인 회복에 따라 5%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 2005년 하반기 성장률은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수출증가세도 안정됨에 따라 상반기 성장률(3.0%)을 크게 상회하는 4%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

- 2006년에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표 II-2> 주요 경제지표 전망

(전년 동기대비, %)

	2004년p	2005				2006년	
	연간	1/4p	2/4p	3/4	4/4	연간	연간
경제성장률	4.6	2.7	3.3	4.6	4.9	3.9	5.0
총소비	0.2	1.7	3.0	4.5	4.9	3.6	4.5
- 민간소비	-0.5	1.4	2.8	4.7	5.2	3.5	4.6
총고정투자	1.9	0.1	2.1	2.5	4.2	2.4	4.4
- 설비투자	3.8	3.1	2.9	4.8	7.5	4.6	8.5
- 건설투자	1.1	-2.9	1.7	0.8	1.9	0.7	1.5
경상수지(억달러)	276	60	28	27	30	144	68
총수출(물량)	19.7	7.4	5.5	13.2	9.1	8.8	9.6
총수입(물량)	13.8	5.2	5.5	12.3	8.5	7.9	10.2
소비자물가상승률	3.6	3.2	3.0	2.4	3.1	2.9	3.1
실업률	3.7	4.2	3.7	3.6	3.5	3.8	3.7

주) p는 잠정치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2005. 3/4), 2005. 10

□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지속하여 2005년에 3%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2006년에는 4%대 중반으로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
- 2005년 중 민간소비는 가계신용조정의 마무리로 소비위축요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2.1%)보다 크게 높아진 5%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6년에도 고용여건의 개선 및 소득증가에 따라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어 연간으로 4%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투자

- 2005년 설비투자는 3/4분기 이후 개선되고 있는 설비투자관련 선행지

표들을 감안할 때 점차 회복세가 가시화되어 4%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6년에는 본격적인 소비회복에 따라 그동안 크게 부진하였던 운수장비투자가 개선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8%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05년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1%를 하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6년에는 BTL 및 기업도시 등의 영향으로 2005년보다 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

□ 물가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각각 2005년의 2.9%와 2.4%에서 2006년에는 3.1%와 2.7%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05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환율하락이 부분적으로 상쇄하였으나, 2006년에는 환율효과가 소멸되는 한편 내수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증가에 기인하여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

□ 경상수지

- 경상수지는 2006년에 60~7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2005년(140억 달러 내외)에 비해 흑자 폭이 축소될 전망
- 상품수지는 2006년에 내수회복의 영향으로 2005년(330억 달러)에 비해 축소된 28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달러금액) 증가율은 2006년에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 및 IT 경기의 점진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의 낮은 증가에 기인하여 2005년(11%대)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 수입(달러금액)증가율은 2006년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2005년(16% 내외)에 비해 소폭 하락한 15%대를 기록할 전망

□ 주요기관의 국내경제전망

- 국내 주요 기관들이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결과를 보면 2005년도 경제

성장률은 3.7%~4.0% 수준으로 전망되며, 2006년은 4.6%~5.0% 내외로 성장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5년에 2.9% 내외, 2006년에는 경제성장을 반영하여 2005년보다 약간 상승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2005년 및 2006년 모두 3%대 중후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는 2005년에 15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2006년에는 60억 달러 내외로 흑자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표 II-3> 국내 주요기관의 경제전망

(단위: %)

구 분	KDI		삼성경제연		한국경제연		LG경제연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성장률	3.9	5.0	3.7	4.8	3.8	4.9	4.0	4.6
소비자물가상승률	2.9	3.1	3.2	3.6	2.8	2.9	2.9	3.3
실업률	3.8	3.7	3.8	3.6	3.8	3.8	3.6	3.5
경상수지(억불)	144	68	133	62	163	54	167	22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2005. 3/4), 2005. 10.13.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5. 9.30
 삼성경제연구소, SERI Economic Outlook('05년 하반기 및 '06년 전망), 2005. 10.13
 LG경제연구원, LG주간경제, 2006년 국내외 경제전망, 2005. 10.19.

2. 국제 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국제 유가 동향

□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지난 9월 1일 \$59.45로 사상 최고가를 보인 국제유가(DUBAI유 기준)는 고유가로 인한 국제 석유수요의 둔화와 허리케인의 추가피해 완화, 그리고 미국의 생산차질의 점진적 회복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임.

- 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요의 둔화는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IEA, OPEC 등 주요기관들도 세계석유수요를 하향 조정함.

- 허리케인의 피해 이후 미 멕시코만의 원유생산은 70% 가량 가동중단 상태인 반면, 정제시설은 빠르게 생산회복을 하여 공급부족의 우려를 해소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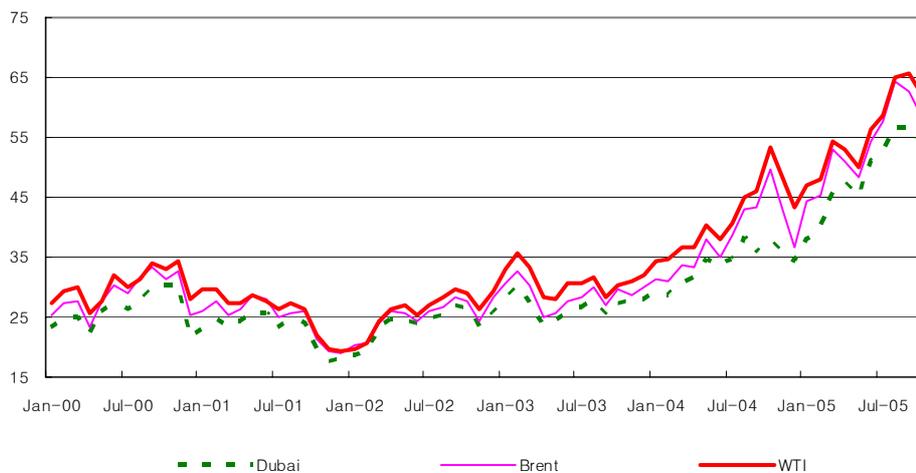
<표 II-4> 2005년 월평균 국제원유가 추이

(단위: \$/Bbl)

구 분	WTI		Brent		Dubai	
2005년 1월	46.84	(36.8)	44.44	(41.8)	37.97	(31.6)
2005년 2월	47.96	(38.1)	45.37	(46.9)	39.91	(39.4)
2005년 3월	54.27	(47.8)	52.96	(56.6)	45.85	(49.0)
2005년 4월	52.94	(44.2)	50.9	(52.4)	47.21	(49.7)
2005년 5월	49.91	(23.9)	48.33	(27.7)	45.41	(31.0)
2005년 6월	56.38	(48.3)	54.29	(54.7)	51.06	(52.2)
2005년 7월	58.68	(43.8)	57.66	(49.7)	52.84	(52.1)
2005년 8월	64.96	(44.6)	64.39	(49.5)	56.77	(47.7)
2005년 9월	65.60	(42.9)	62.82	(44.7)	56.75	(59.4)
2005년 10월	62.30	(17.0)	58.53	(17.5)	53.95	(42.0)
2005년 11월	59.10	(22.0)	57.20	(33.0)	52.43	(49.6)

주) ()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11월 평균가격은 11월 15일까지의 평균

[그림 II-1] 월평균 국제원유가 추이



나. 세계 석유 수급 전망

□ IEA는 10월 발표된 “석유시장보고서”를 통하여, 2005년도 세계 석유수요 전망치가 전월 전망치 보다 20만 b/d 감소한 8,348만 b/d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06년 석유수요 역시 전월 전망치보다 감소한 8,525만 b/d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OPEC도 10월 단기전망보고서에서 2005-2006년 세계석유수요를 전월전망치에서 하향조정하였으며, 미국 EIA는 2005-2006년 세계 석유수요 증가율이 작년 3.2%에 비해 평균 1.8%로 많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동절기 난방용 석유의 수요가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 멕시코만 지역의 정제차질의 영향으로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표 II-5> IEA 세계 석유 소비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 b/d)

구 분	2004년	2005년 (전망)					2006년 (전망)				
		1/4	2/4	3/4	4/4	연평균	1/4	2/4	3/4	4/4	연평균
OECD	49.5	50.6	48.7	49.3	51.0	49.9	50.9	48.9	50.1	51.5	50.3
북미	25.3	25.5	25.3	25.7	26.0	25.6	25.9	25.5	26.1	26.4	26.0
유럽	15.6	15.5	15.3	15.5	16.0	15.6	15.5	15.3	15.7	16.0	15.6
아태	8.5	9.5	8.1	8.1	8.9	8.7	9.5	8.1	8.3	9.1	8.7
비OECD	32.7	33.3	33.2	33.3	34.6	33.6	34.4	34.5	34.8	35.9	34.9
중국	6.4	6.5	6.4	6.6	7.0	6.7	6.9	6.9	7.2	7.5	7.1
아시아*	8.5	8.7	8.9	8.5	8.9	8.7	8.9	9.1	8.8	9.2	9.0
전세계	82.1	83.8	81.9	82.6	85.6	83.5	85.4	83.4	84.9	87.3	85.3

주) 아시아*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개도국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10월호

다. 국제 유가 전망

- 향후 국제유가는 동절기 난방유 수급차질 우려에 의한 상승 압박이 존재하고 있고, 미 멕시코만 공급차질의 지속기간, 중동 산유국들의 정정불안 등의 요인으로 금년 4/4분기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내년은 기관별로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으나 금년 평균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표 II-6> 7월 해외 주요기관 유가 전망

(단위: \$/Bbl)

기관	기준	2005			2006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CGES	Brent(D)	58.50	54.80	58.60	55.10	56.50	64.00	58.50
CERA	Dubai	56.67	50.23	54.50	50.50	47.50	45.50	49.50
	Brent(D)	60.67	55.39	58.50	54.50	51.50	49.50	53.50
	WTI	63.00	57.29	60.00	56.00	53.00	51.00	55.00
EIA	WTI	64.42	57.60	64.42	63.75	64.75	65.08	64.50
PIRA	Brent	60.00	55.15	56.05	49.25	51.10	48.90	51.30
	WTI	62.00	56.95	57.60	50.65	52.45	50.60	52.85

Ⅲ. 2006년 에너지 수요 전망

□ 에너지수요전망을 위한 입력 전제인 거시 경제 지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전망치(2005. 10)를 기준으로 사용하였음.

- 최근 정부 및 국내 민간 연구소들은 2005년 경제성장률은 3.9%에 머물렀으나 2005년 4/4분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어 2006년 성장률이 5%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III-1> 경제전망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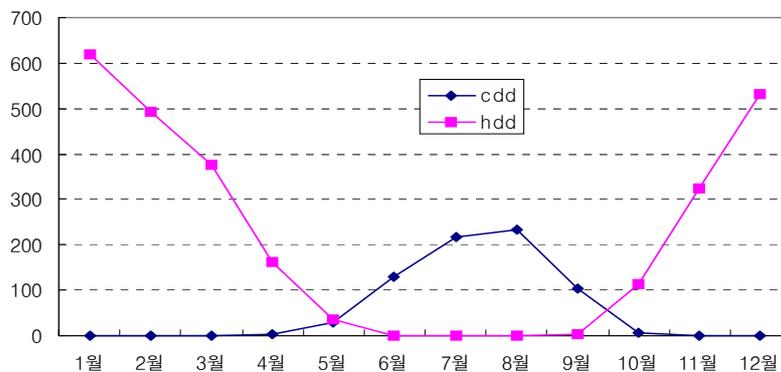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경제성장률	9.3	3.0	6.3	3.1	4.6	3.9	5.0
소비자물가	2.3	4.1	2.7	3.6	3.6	2.9	3.1

□ 기온변수는 지난 20년간 평균 월별 기온 정보를 이용하였음.

<표 III-2> 평균기온 및 냉·난방도일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2.0	0.5	5.8	12.7	17.8	22.2	25.0	25.5	21.3	14.5	7.3	1.0
HDD	620.6	493.5	376.4	162.8	37.2	1.6	0.0	0.0	4.7	113.2	322.6	532.7
CDD	0.0	0.0	0.0	3.6	30.6	129.4	217.9	234.0	102.6	5.5	0.0	0.0

[그림 III-1] 냉·난방도일 전체 (2006)



<‘06 에너지수요전망의 시사점>

-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가 저에너지소비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에너지수요증가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임.
- 에너지소비는 향후 기후여건의 일시적 변화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절기 및 하절기 이상 기후에 대비한 에너지수급 관리가 중요함.
- 전력은 고급에너지원으로서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는 추세임(‘06년 증가율 6.8%). 한편 ‘06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증설이 없기 때문에 타 발전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발전용 LNG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LNG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 서민용 연료인 가정·상업용 연탄(국내 무연탄)의 수요가 ‘05년에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빠른 증가세가 ‘0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등유에 대한 상대가격 하락으로 연탄의 경제성이 크게 부각된데 원인이 있음. 국내 무연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연탄에 대한 수요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고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5년 석유수요가 1.7% 내외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료유에 대한 석유화학산업의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석유수요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원료유를 제외한 석유수요는 2005년 0.4% 증가, 2006년은 1.2% 감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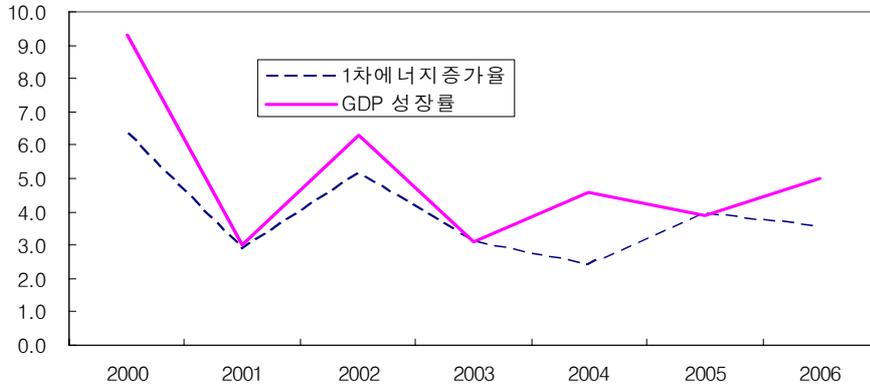
구분	'00	'01	'02	'03	'04	'05	'06
석유수요 증가율(%)	3.2	0.1	2.6	0.0	-1.4	1.7	0.4
원료유제의 증가율(%)	2.4	-1.0	1.1	-1.9	-4.9	0.4	-1.2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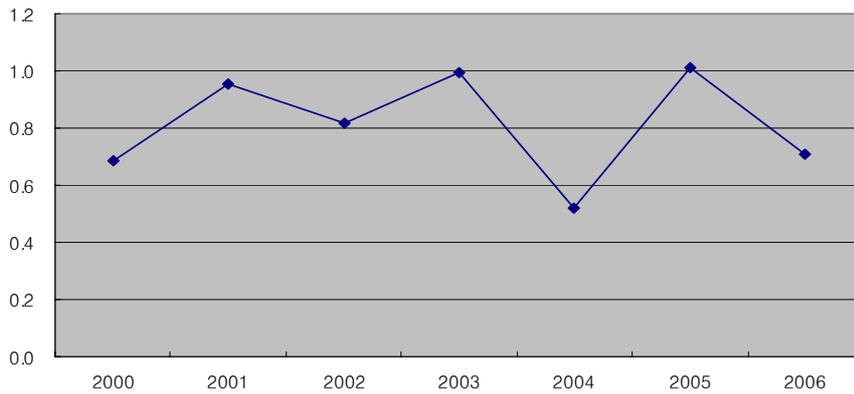
- 총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 전년대비 4.0% 증가한 228.94백만 TOE, 2006년에는 3.5% 증가한 237.06백만 TOE로 전망됨.
 - 2005년도 경제성장률이 3.9%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총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05년 1/4분기의 상대적으로 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난방용 에너지수요가 전년 동기대비 크게 늘어난데 주 원인이 있음.
 -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유 수요 증대, 2004년 유가급등에 따른 석유소비 감소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 주 5일제 근무확산에 따른 수송용 연료수요 증가⁵⁾ 등도 수요증가 요인으로 작용
 - 2006년 총에너지수요는 경제성장률(5.0%) 상승 전망이 반영되었으나, 기후조건 및 원료유 수요 증대에 의한 2005년 수요반등에 대한 상대적 반락효과와 2006년의 연료가격 인상 효과 등으로 인하여 3.5%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대 들어 경제구조가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안정되어 있어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생산활동 변동 또는 기후조건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에너지수요 증가율의 변동이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5) 2004년 7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과 금융·보험업·공기업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 2002년 12월초 수도권 지역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통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의 주말 통행중 출근·퇴근·업무통행을 제외한 통행 발생량은 5일 근무제 실시 이전보다 1인당 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교통개발연구원, 「교통」, 20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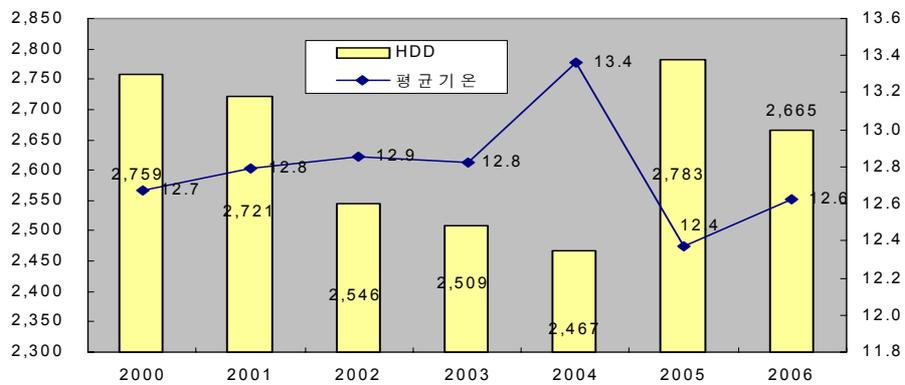
[그림 III-2] 총에너지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그림 III-3] 에너지소비의 GDP 탄성치



[그림 III-4] 난방도일 및 평균기온



- 2006년도 총에너지 수요를 에너지원별로 보면 원자력 및 석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에너지원이 2005년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
 - 2004년에 감소하였던 석유 수요는 2005년에 전년대비 1.7%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며, 2006년에는 증가율이 2005년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 석유수요가 고유가 상황 및 산업 활동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2004년 소비 감소에 대한 상대적인 반등 효과와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유에 대한 견실한 수요 증가, 주 5일근무제 확대 등에 기인함.
 - 2006년 수요 둔화는 평년 기온을 가정함에 따른 전년 대비 난방용 수요 감소 효과, 원료유에 대한 수요 둔화, 석유제품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효과 등을 반영

<표Ⅲ-3> 총에너지 수요 전망

분기	2004					2005e					2006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	4/4	연간	
석탄 (천톤)	20,430 (3.9)	19,478 (1.3)	20,446 (5.1)	21,753 (4.7)	82,116 (3.8)	20,052 (-1.8)	20,015 (2.7)	21,478 (5.0)	22,121 (1.7)	83,666 (1.9)	86,778 (3.7)
석유 (백만bbl)	200.6 (-2.8)	176.6 (0.3)	176.2 (2.0)	199.0 (-4.3)	752.3 (-1.4)	207.4 (3.4)	180.0 (1.9)	175.9 (-0.2)	201.4 (1.2)	764.8 (1.7)	767.9 (0.4)
LNG (천톤)	7,896 (24.6)	4,400 (13.4)	3,504 (21.0)	6,009 (9.3)	21,809 (17.2)	8,263 (4.7)	3,905 (-11.2)	3,903 (11.4)	6,779 (12.8)	22,851 (4.8)	26,136 (14.4)
수력 (TWh)	0.8 (-19.4)	1.2 (-33.1)	2.9 (-2.9)	1.0 (-13.8)	5.9 (-14.9)	0.7 (-8.3)	1.2 (3.8)	2.1 (-28.3)	1.0 (-2.5)	5.0 (-14.6)	5.1 (2.6)
원자력 (TWh)	30.1 (-7.9)	30.8 (8.8)	35.5 (3.1)	34.3 (0.2)	130.7 (0.8)	35.5 (18.2)	37.6 (22.1)	36.5 (2.6)	37.4 (8.9)	147.0 (12.4)	148.8 (1.3)
기타 (천TOE)	911 (20.8)	992 (24.0)	953 (24.4)	1,121 (21.8)	3,977 (22.7)	1,140 (25.2)	1,254 (26.4)	1,202 (26.2)	1,382 (23.3)	4,978 (25.2)	6,012 (20.8)
총에너지 (백만TOE)	59.0 (2.0)	51.0 (3.1)	51.8 (4.6)	58.5 (0.3)	220.8 (2.4)	61.6 (4.5)	53.1 (4.2)	53.2 (2.6)	61.0 (4.3)	228.9 (4.0)	237.1 (3.5)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e는 전망치

- 원자력은 2005년에 울진 5,6호기(2,000MW) 가동에 따라 1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에는 신규 설비증설이 없어 1% 내외의 증가율

을 보일 전망이다.

- LNG 수요는 2005년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대비 4.8%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원자력 신규설비 가동으로 발전용 수요가 부진한데 기인함. 반대로 2006년에는 발전용 LNG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4%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석탄 수요는 2005년에 산업용 수요 부진에 따라 1.9% 수준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며, 2006년에는 설비증설에 따라 발전용 수요가 확대되고, 경기활성화로 산업용 수요도 회복됨에 따라 3.7%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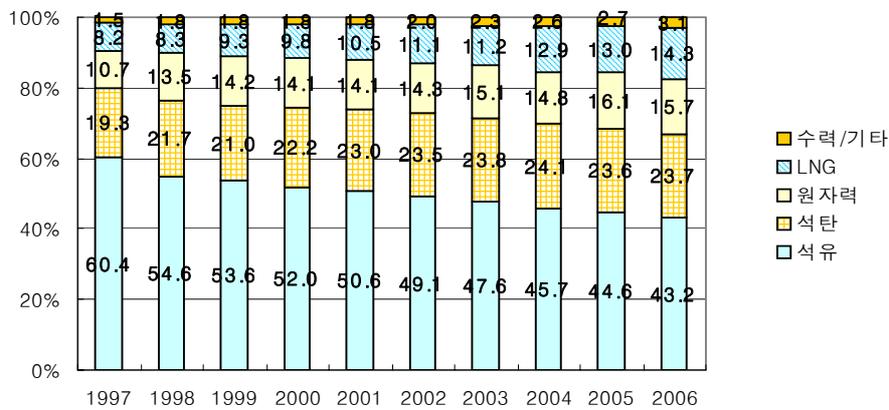
□ 에너지원별 소비 점유율은 2005년 및 2006년에 전반적으로 과거의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석유의 비중은 1998년 54.6%로 크게 낮아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에 45.7%까지 감소하였으며 2005년 및 2006년에는 더욱 낮아져 각각 44.6%, 43.2%에 그칠 전망이다. 이렇듯 석유의 비중이 하락하는 것은 유가상승 및 환경규제 등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최종 수요부문에서 도시가스 및 전력 등 타 에너지원으로 연료대체가 발생하는데 기인함.
- LNG 소비 비중은 2005년 13.0%, 2006년에는 1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05년에 LNG 소비비중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는 것은 올해 신규 원자력 설비의 도입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이며, 2006년의 점유율 확대는 신규 원전설비 가동이 없는데 따른 발전용 LNG 수요확대 전망이 반영된 것임. 상대적으로 청정한 연료이고 사용의 편리성도 갖춘 LNG 비중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은 최종에너지원 가운데 전력의 비중 상승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석탄 소비 비중은 2005년에 전년보다 다소 낮은 23.6%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LNG와 마찬가지로 신규 원전 가동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산업용 유연탄 소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석탄소비 비중은 2006년에도 23.7%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신규 원전 설비가 도입되는 2009년까지 석탄소비

비중은 완만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2005년 원자력의 비중은 신규 설비의 가동에 힘입어 2004년보다 1.3% 포인트 상승한 16.1%가 될 전망이며, 2006년에는 15.7%로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I-5] 총에너지원별 점유율 전망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최종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 3.2%, 2006년에는 2.5%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 2005년 상반기 최종에너지수요는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온, 원료유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9%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2006년의 수요 둔화 전망에는 석유화학업의 원료유 수요 둔화, 2005년의 난방용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한 상대적 반락효과,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효과 등이 반영
- 최종 수요부문별로는 2006년 산업부문의 에너지수요증가율이 산업활동 증가로 인해 2005년도 전망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에는 2.3% 수준으로 증가율이 상승할 전망. 산업부문의 석유 및 석탄수요는 모두 0.5% 내외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도시가스는 2.8%, 전력은 6.1% 증가할 전망이다.

<표III-4>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구 분	2004					2005e					2006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	4/4	연간	
산 업 (백만TOE)	23.5 (2.2)	22.5 (2.5)	22.6 (3.2)	24.4 (1.8)	93.0 (2.4)	23.9 (2.0)	22.9 (2.1)	22.9 (1.3)	24.8 (1.4)	94.6 (1.7)	96.7 (2.3)
수 송 (백만TOE)	8.3 (1.7)	8.8 (0.5)	8.8 (1.9)	8.7 (-4.0)	34.6 (-0.1)	8.4 (1.0)	9.1 (3.6)	9.0 (2.2)	9.1 (5.1)	35.7 (3.0)	36.7 (3.0)
가·상·공 (백만TOE)	14.0 (0.5)	7.7 (2.8)	6.4 (2.9)	10.3 (-5.7)	38.4 (-0.4)	15.1 (7.8)	8.1 (5.9)	6.7 (5.7)	11.1 (7.2)	41.1 (6.9)	42.1 (2.6)
합 계 (백만TOE)	45.8 (1.6)	38.9 (2.1)	37.8 (2.9)	43.5 (-1.3)	166.0 (1.2)	47.5 (3.6)	40.2 (3.2)	38.7 (2.3)	45.0 (3.5)	171.3 (3.2)	175.6 (2.5)
도시가스 (백만m ³)	6,292 (5.9)	3,167 (7.4)	2,017 (6.4)	3,943 (-0.1)	15,420 (4.7)	6,951 (10.5)	3,426 (8.2)	2,097 (4.0)	4,362 (10.6)	16,835 (9.2)	17,450 (3.7)
석유 (백만bbl)	190.4 (-0.2)	169.9 (0.8)	170.0 (1.7)	189.0 (-3.6)	719.3 (-0.5)	193.9 (1.8)	173.5 (2.2)	171.3 (0.8)	190.9 (1.0)	729.7 (1.4)	731.8 (0.3)
전력 (TWh)	80.2 (5.6)	75.3 (6.0)	78.5 (9.4)	78.1 (4.3)	312.1 (6.3)	84.8 (5.7)	80.1 (6.3)	83.1 (5.9)	83.6 (7.0)	331.6 (6.3)	354.3 (6.8)
석탄 (천톤)	8,451 (-3.2)	8,203 (-2.2)	8,309 (-2.1)	9,286 (1.2)	34,248 (-1.5)	8,351 (-1.2)	7,863 (-4.1)	8,239 (-0.8)	9,469 (2.0)	33,921 (-1.0)	34,788 (2.6)
열/기타 (천TOE)	1,532 (13.6)	1,166 (21.0)	1,022 (21.5)	1,552 (14.3)	5,271 (16.9)	1,872 (22.2)	1,447 (24.1)	1,282 (25.5)	1,853 (19.4)	6,454 (22.4)	7,556 (17.1)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2004년에 감소하였던 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2005년 및 2006년에 각각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05년은 전년도의 소비 감소에 대한 반등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06년은 산업활동 증가로 경유수요는 확대되겠으나 유가인상에 따른 휘발유 등의 수요 감소로 전년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가정·상업·공공부문은 2005년에 상반기의 기온효과의 영향으로 6%대 후반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나, 2006년에는 2005년의 난방용 수요 증대에 대한 상대적 반락효과로 인하여 3% 이내로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
- 2006년의 부문별 수요점유율은 산업용의 비중이 55.1%로 가장 높고 수송용은 20.9%, 가정·상업·공공부문은 24.0% 수준으로 전망됨.

□ 최종에너지 소비를 원별로 보면 전력과 석탄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의 수요증가율이 2005년보다 2006년에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경기부진과 함께 국제유가 급등으로 제품가격이 상승하면서 2004년에 감소하였던 석유제품 소비는 2005년에 가격 효과가 감소하고 전년의 소비부진에 대한 상대적 영향으로 1.4%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에는 원료유 수요 둔화 등으로 0.3%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 전력수요는 2005년에 6.3% 증가할 전망이며, 2006년에는 경제성장률 상승이 반영되어 6.8% 증가할 전망이다.
- 도시가스는 2005년에 1/4분기의 소비 급증에 힘입어 9.2% 증가할 전망이며, 2006년에는 3%대 후반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 열 및 기타에너지는 급증세를 지속하여 2005년 및 2006년에 각각 22.4%, 17.1%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석탄 소비는 2005년 상반기 시멘트 생산용 및 제철용 유연탄 소비가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1.0% 감소할 전망이며, 2006년에는 2%대 중반으로 수요가 반등할 전망

□ 2006년도 최종에너지의 소비 구성비를 보면 도시가스와 전력의 비중은 상승하나 석유와 석탄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의 소비 비중은 2004년 57.5%에서 2005년 56.5%, 2006년 55.2%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도시가스는 2005년 10.3%, 2006년 10.4%의 점유율을 보일 전망이다.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는 전력은 2004년 16.2%에서 2006년에 17.4%로 점유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석탄의 비중은 2006년에 12.8% 수준으로 예상됨.

3. 석유제품 수요 전망

- 2005년 국내 석유제품 수요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수요증가가 다소 낮아져 전년대비 1.7% 증가하고, 국내 석유가격이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06년에는 이보다 낮은 0.4% 증가할 전망이다.
 - 2006년 석유제품 수요 전망은 가격효과의 영향이 큰 부문 혹은 유종과 국내 경제 또는 산업생산의 효과가 큰 부문 혹은 유종에 따라 뚜렷이 전망 결과가 달라짐.

- 부문별로 살펴보면, 2005년 4/4분기에는 수송부문의 석유수요 증가가 전체 석유수요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2006년에는 전반적으로 석유소비가 감소 추세이나 수송부문과 산업 원료부문의 소비 증가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수송부문은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6년 휘발유의 소비가 줄어들겠지만, 수송경유 등 산업생산과 관련 있는 수송용 석유소비의 증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올해와 비슷한 연평균 2.7%의 증가가 예상된다.
 - 산업부문에서는 석유제품 가격 상승과 연료 대체로 인한 연료용 석유소비의 감소가 지속되고, 산업 원료용 석유소비도 올해에 비해 다소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이어서 산업용 석유소비는 1%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석유수요는 고유가로 인한 연료 대체로 소비 감소추세이지만, 4/4분기 난방용 석유수요 증가로 감소폭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고, 2006년은 올해 감소폭이 작다는 상대적 영향으로 감소율이 -9.3%로 다시 커질 전망이다.
 - 전환부문은 금년 올진 5, 6호기의 가동과 내년 LNG 발전 확대의 영향으로 2.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표 III-5> 부문별 석유제품 수요 전망

(단위: 백만bbl)

	2004					2005e					2006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p	4/4	연간	
수 송	59.8 (1.5)	63.4 (0.2)	63.5 (1.8)	62.4 (-4.1)	249.1 (-0.2)	60.6 (1.3)	65.5 (3.2)	64.8 (2.1)	65.5 (4.9)	256.3 (2.9)	263.3 (2.7)
산 업	97.7 (2.3)	90.8 (2.1)	93.6 (3.5)	101.0 (1.2)	383.1 (2.2)	100.1 (2.4)	93.3 (2.8)	93.7 (0.1)	100.7 (-0.3)	387.7 (1.2)	390.8 (0.8)
- 연료	25.7 (-3.8)	22.1 (-1.2)	20.5 (-2.4)	24.2 (-10.7)	92.5 (-4.8)	24.1 (-6.1)	20.6 (-6.8)	18.7 (-8.8)	23.2 (-4.0)	86.7 (-6.3)	81.1 (-6.4)
- 원료	72.0 (4.7)	68.6 (3.2)	73.1 (5.3)	76.8 (5.6)	290.6 (4.7)	75.9 (5.5)	72.7 (5.8)	74.9 (2.5)	77.5 (0.8)	301.0 (3.6)	309.7 (2.9)
가·상·공	32.9 (-9.6)	15.7 (-4.3)	12.9 (-10.0)	25.6 (-18.1)	87.1 (-11.5)	33.3 (1.0)	14.8 (-5.8)	12.9 (-0.2)	24.7 (-3.4)	85.6 (-1.7)	77.7 (-9.3)
전 환	10.2 (-34.6)	6.7 (-9.4)	6.2 (12.2)	9.9 (-15.6)	33.0 (-18.0)	13.5 (33.0)	6.4 (-3.8)	4.6 (-26.5)	10.5 (6.0)	35.1 (6.2)	36.1 (2.8)
석 유 계	200.6 (-2.8)	176.6 (0.3)	176.2 (2.1)	199.0 (-4.3)	752.3 (-1.4)	207.4 (3.4)	180.0 (1.9)	175.9 (-0.2)	201.4 (1.2)	764.8 (1.7)	767.9 (0.4)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주요 석유제품별로 살펴보면, 2005년 상반기 빠른 증가세를 보이던 휘발유와 납사 수요가 하반기 이후 휘발유는 감소하고 납사의 경우는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송경유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 휘발유 수요는 제품가격 인상 효과가 3/4분기부터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4분기 및 2006년도 휘발유 수요는 -1.0%와 -2.6%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수송용 경유는 정부의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경유에 대한 세금환급으로 가격인상 효과가 직접 반영되지 않고, 경제활동이 회복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2006년 경제성장률이 5%를 유지할 경우 수송용 경유 수요는 4.7% 증가하여, 내년 석유소비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등·경유(수송경유 제외) 수요는 고유가로 인한 연료대체가 지속되며, 감소폭은 내년 들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중유 수요 역시 작년 4/4분기 큰 폭의 하락 때문에 금년 4/4분기의 하락율은 다소 작을 것이나, 수송용 중유수요 이외 다른 부문의 중유수요는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국제 석유화학산업의 호경기가 2007년까지 지속되며 경기하락 시에도 급락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납사수요는 내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올해보다 약간 떨어질 것으로 보임.
- LPG 수요는 수송부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006년에 1.1% 증가할 전망이다.

<표 III-6> 주요 석유제품 수요 전망

(단위: 백만bbl)

	2004					2005e					2006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p	4/4	연간	
휘 발 유	13.4 (-6.6)	14.1 (-5.4)	15.9 (0.1)	14.7 (-4.0)	58.1 (-3.9)	14.3 (6.4)	15.1 (6.6)	15.2 (-4.0)	14.6 (-1.0)	59.1 (1.7)	57.6 (-2.6)
수송경유	26.5 (3.3)	29.7 (0.7)	26.8 (3.5)	29.0 (-0.2)	112.0 (1.8)	25.9 (-2.2)	30.3 (1.9)	27.0 (0.8)	30.0 (3.6)	113.3 (1.1)	118.6 (4.7)
등유+경유 (발전용 포함)	28.2 (-17.8)	13.0 (-3.8)	11.0 (-14.8)	22.6 (-17.4)	74.8 (-15.1)	26.4 (-6.4)	11.9 (-8.6)	10.6 (-3.9)	21.8 (-3.5)	70.7 (-5.5)	65.3 (-7.7)
중 유 (발전용 포함)	31.5 (-6.8)	23.8 (-8.3)	21.8 (-6.6)	27.9 (-14.8)	105.0 (-9.4)	32.9 (4.6)	22.8 (-4.1)	20.0 (-8.5)	27.9 (-0.1)	103.6 (-1.3)	99.5 (-3.9)
납 사	66.3 (3.5)	61.4 (2.0)	66.7 (5.3)	68.5 (5.6)	262.9 (4.1)	70.6 (6.5)	65.7 (7.1)	68.3 (2.4)	69.7 (1.7)	274.3 (4.3)	282.7 (3.1)
L P G (도시가스포함)	23.3 (-3.1)	21.8 (5.9)	20.6 (4.8)	22.6 (-6.6)	88.4 (-0.2)	24.5 (4.9)	20.8 (-4.8)	21.0 (2.0)	23.5 (3.9)	89.8 (1.6)	90.8 (1.1)

주) 등유+경유: 경유(수송용 제외),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 소비량의 합.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4. 전력 수요 전망

□ 2005년 전력수요는 하반기 이후의 경제여건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에는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상반기의 전력수요는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1/4분기 추운 날씨의 영향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6.0%)를 보였음.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데 힘입어 전력수요가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6.3%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05년 부문별 전력수요를 보면, 상업용 수요가 8.2% 증가하여 전력수요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상업용 수요는 2003년부터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산업용과 가정용 수요는 모두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I-7> 전력수요 전망

(단위 : TW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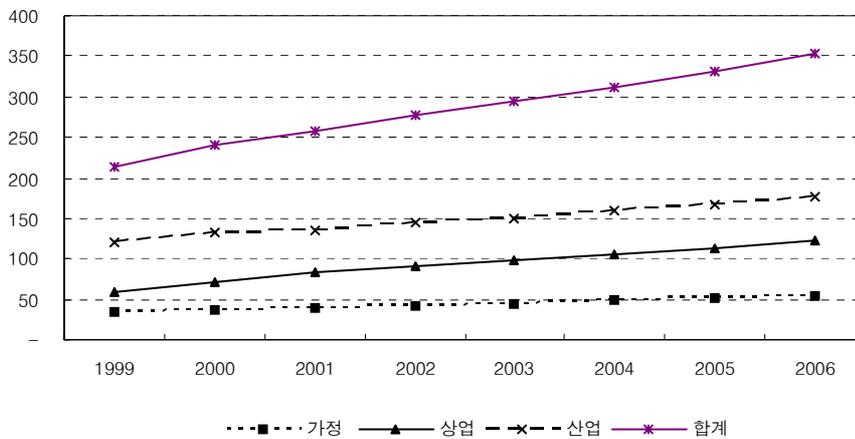
	2004					2005e					2006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p	4/4	연간	
가정용	12.5 (7.2)	11.5 (7.2)	12.7 (11.8)	11.9 (10.1)	48.6 (9.1)	13.0 (4.5)	12.2 (5.6)	13.3 (4.5)	12.7 (6.3)	51.2 (5.2)	54.2 (6.0)
상업용	29.1 (6.6)	24.3 (6.6)	26.3 (11.2)	25.5 (2.2)	105.1 (6.6)	31.5 (8.5)	26.3 (8.4)	28.3 (7.3)	27.7 (8.8)	113.8 (8.2)	123.3 (8.3)
산업용	38.6 (4.3)	39.5 (5.3)	39.5 (7.6)	40.7 (4.0)	158.3 (5.3)	40.2 (4.0)	41.6 (5.3)	41.6 (5.5)	43.2 (6.1)	166.6 (5.2)	176.8 (6.1)
총계	80.2 (5.6)	75.3 (6.0)	78.5 (9.4)	78.1 (4.3)	312.1 (6.3)	84.8 (5.7)	80.1 (6.3)	83.1 (5.9)	83.6 (7.0)	331.6 (6.3)	354.3 (6.8)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e는 전망치

- 200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수요가 6.8% 증가할 전망이다. 상업용 수요가 8.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용 및 가정용은 6%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그림 III-6] 전력 수요 전망

(단위 : T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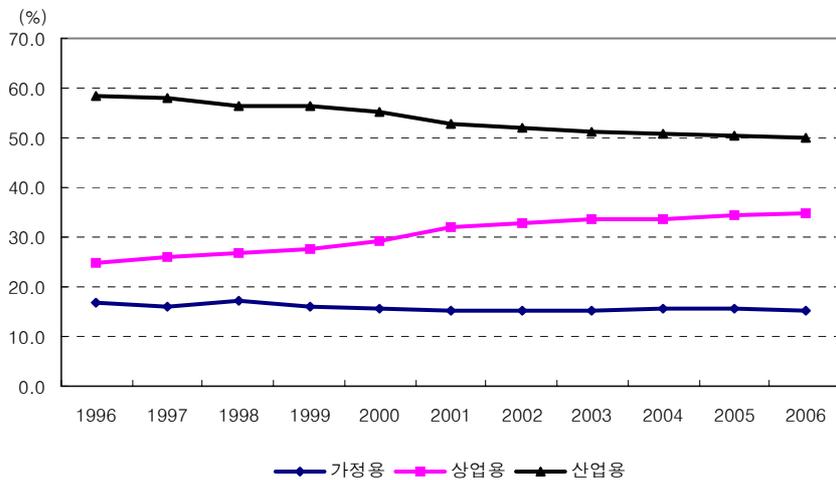


- 부문별 전력 소비 비중은 과거의 추세를 이어 산업용은 감소하고 상업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부문의 전력소비 점유율은 2001년 52.7%에서 2004년에는 50.7%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5년 및 2006년에도 50.2%, 49.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상업용의 경우는 반대로 2001년 32.1%에서 상승 추세를 지속하여 2004년에는 33.7%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에는 34.3%, 2006년에는 34.8%까지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가정용 전력의 점유율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15.2%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2004년에는 여름철 고온현상에 따른 냉방소비 증가로 일시적으로 15.6%까지 상승하였으나 2005년 15.4%, 2006년 15.3%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부문별 전력 소비의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01년까지는 상업용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산업용과 가정용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지속하였음. 2002년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점유율 변화 정도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I-7] 부문별 전력소비 비중 추이



5. LNG 및 도시가스 수요 전망

- 2005년 LNG 수요는 2004년 대비 4.8% 증가한 22,851천톤으로 예측됨.
 - 분기별로는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4.7% 소폭 증가에 그쳤고 2/4분기는 발전용 LNG 수요 감소에 따라 -11.2%의 감소세를 기록했음. 하반기에는 산업 및 소비활동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LNG 수요도 3/4분기와 4/4분기 각각 11.4%와 12.8% 증가할 전망.
 - 2005년 도시가스용 LNG 소비 증가율은 9.1%로 전년도의 4.4%에 비해

여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3/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수요가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7, 8월 가정용 수요의 감소와 산업활동, 특히 제조업 분야의 위축으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3.9%로 증가율이 둔화되며 4/4분기는 전년 동분기의 고온 현상에 대한 상대적 효과로 인해 9.2%로 증가율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발전용 LNG 수요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8,970천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이는 2004년 영광 5,6호기 원전가동 일시 중지 및 여름철 고온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등으로 LNG 소비가 크게 증가한데 대한 상대적인 요인 외에도 2005년 울진 5,6호기 가동에 따라 원자력 발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임. 실제로 금년 1/4분기 와 2/4분기 모두 원자력 발전의 증가로 발전용 LNG 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6.8%, 24.4% 감소함.

- 2006년 LNG 수요는 2005년 대비 14.4% 증가한 26,136천톤으로 예측됨.
 - 2008년까지 원자력 발전설비 증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2006년도 증가하는 발전전력 상당부분을 LNG 발전이 담당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발전용 소비는 2005년 대비 30.1%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됨.

<표 III-8> LNG 수요 전망

(단위: 천톤)

구 분	2004					2005e					2006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	4/4	연간	
도시가스용	4,999 (5.3)	2,169 (8.0)	1,577 (5.9)	3,759 (0.7)	12,504 (4.4)	5,623 (12.5)	2,268 (4.6)	1,639 (3.9)	4,106 (9.2)	13,636 (9.1)	14,155 (3.8)
발 전 용	2,729 (81.5)	2,137 (15.7)	1,839 (31.7)	2,113 (22.7)	8,818 (36.3)	2,545 (-6.8)	1,616 (-24.4)	2,218 (20.6)	2,592 (22.6)	8,970 (1.7)	11,672 (30.1)
L N G 계	7,895 (24.6)	4,400 (13.4)	3,504 (21.0)	6,009 (9.3)	21,884 (17.2)	8,263 (4.7)	3,905 (-11.2)	3,903 (11.4)	6,779 (12.8)	22,851 (4.8)	26,136 (14.4)

주) 1.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2. LNG계는 자체소비가 포함된 1차에너지 총량을 의미함.
 3. 발전용 LNG에는 지역난방 및 자가발전 LNG 투입량도 포함되어 있음.

□ 2005년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9.2% 증가한 16,835백만³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도시가스 소비는 1/4분기 난방도일의 증가로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2/4분기에는 상업용 수요가수의 높은 증가와 산업 활동의 회복에 따라 8.0%의 견조한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됨. 3/4분기에는 가정용 소비의 감소와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종의 부진에 따라 4.0%, 4/4분기는 전년 소비부진의 상대적 영향이 반영되어 10.6%라는 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가정용 도시가스의 수요는 수요가수가 5% 후반대의 안정적 추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동절기 평년기온을 예상하고, 경기회복 가시화 전망 등으로 8.1% 증가할 전망.

<표Ⅲ-9> 도시가스 수요 전망

(단위: 백만³)

구 분	2004					2005e					2006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	4/4	연간	
가 정 용	3,945 (4.0)	1,629 (4.8)	541 (-6.7)	2,103 (-4.3)	8,218 (1.1)	4,266 (8.1)	1,736 (6.5)	533 (-1.5)	2,353 (11.9)	8,888 (8.1)	9,094 (2.3)
상 업 용	1,034 (12.8)	501 (14.1)	529 (17.6)	654 (3.7)	2,718 (11.5)	1,265 (22.3)	581 (16.0)	580 (9.7)	767 (17.3)	3,194 (17.5)	3,377 (5.7)
산 업 용	1,223 (4.9)	964 (5.6)	873 (6.4)	1,113 (3.1)	4,174 (4.9)	1,325 (8.3)	1,013 (5.0)	897 (2.7)	1,148 (3.2)	4,382 (5.0)	4,507 (2.8)
도시가스 계	6,292 (5.9)	3,167 (7.4)	2,017 (6.4)	3,943 (-0.1)	15,420 (4.7)	6,951 (10.5)	3,340 (8.0)	2,010 (4.0)	4,269 (10.6)	16,835 (9.2)	17,450 (3.7)

주) 1.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2. 도시가스계에는 열병합발전 및 수송용에 사용된 물량이 포함되어 있음.

-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는 1/4분기에 8.1%, 2/4분기에 6.5% 증가하였으나, 3/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저온 건조한 기후의 영향에 의한 온수용 소비감소에 기인하여 1.5% 소비 감소가 나타나며, 4/4 분기

에는 평년수준의 기온을 가정할 경우 11.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전반적으로 가정부문의 도시가스 수요는 2000년 이후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상업부문의 도시가스 수요는 2004년 11.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2005년에는 증가세가 더욱 확장되어 17.5% 증가한 3,194백만 m^3 로 전망됨.

- 2005년 1/4분기, 2/4분기에 25% 이상의 높은 수요가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가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함. 이에 따라 3/4분기와 4/4분기에도 경기회복과 평년기온을 고려할 때 각각 9.7%와 17.3%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유가급동이 상업부문에서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를 촉진한다는 점이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함.

□ 2005년도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산업부문의 수요는 전반기 산업 활동의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지만 산업용 도시가스의 상당부분을 소비하는 제조업종, 특히 금속제품 및 산업기계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 및 감소에 따라 3/4분기 2.7%, 4/4분기 3.2%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며, 2005년 연간으로는 5.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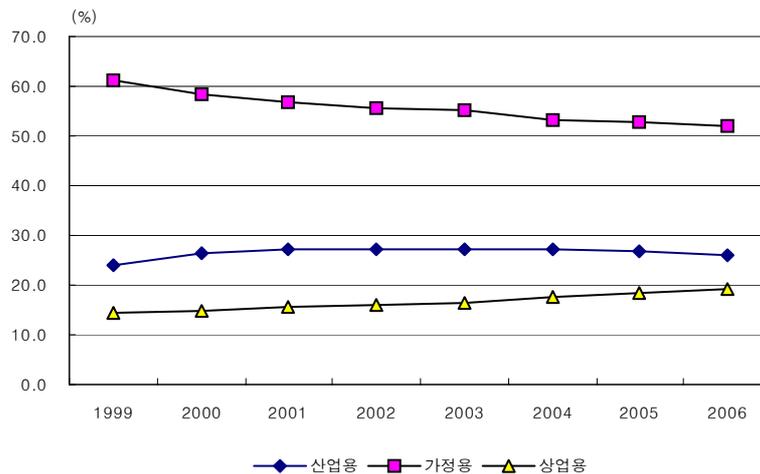
□ 2006년도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17,450백만 m^3 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평년기온과 GDP 성장률 5.0%를 가정할 때 가정용 소비는 수요가수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도시가스 가격 상승 영향으로 증가율이 2.3%로 둔화되며, 상업용 수요는 2005년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으로 5.7% 증가하는데 머물 전망임.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도시

가스 다소비 업종의 부가가치 비중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2006년 소비 증가율은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도시가스의 부문별 소비구조를 보면 가정용의 소비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상업용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2005년과 2006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가정용의 비중은 50%대 초반으로 줄어드는 반면 상업용은 2005년 19.2%, 2006년 19.4%까지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림 III-8] 부문별 도시가스 소비 비중 추이



6. 석탄 및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 석탄수요는 2004년에 경제성장 둔화 및 발전용 수요둔화(3.9%) 전망에 따라 전년대비 1.9% 증가한 8,36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에는 3.8%로 2005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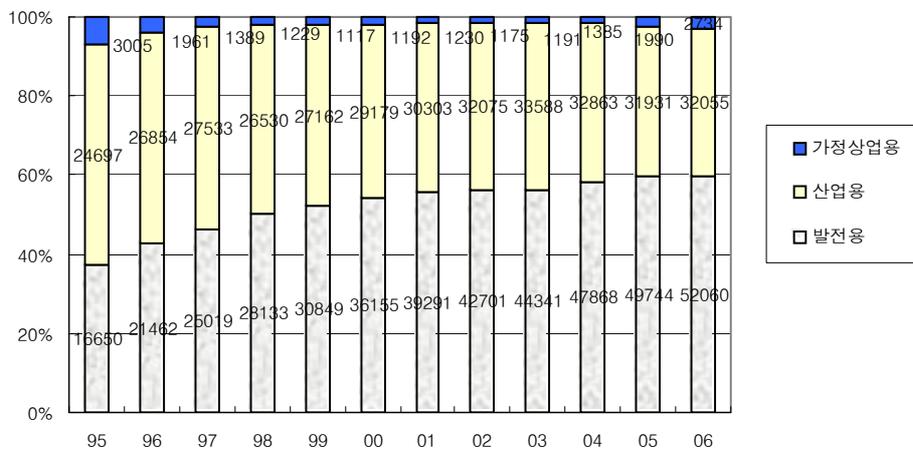
- 석탄수요를 용도별로 보면, 발전용 석탄은 2005년에 설비증설 저조

[2005년12월 당진 석탄화력5호기(500MW)], 원전 설비증설 등의 영향으로 전년 수준(8.0%)보다 크게 둔화된 3.9%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06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설비 증설[2006년6월 당진 석탄화력6호기(500MW)] 등으로 4.7%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 산업용 석탄은 2005년에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1% 미만에 머물 전망이다.
- 가정·상업용 수요는 경기둔화 지속 및 석유가격 급등으로 연탄의 경제성이 크게 부각되어 화훼단지에서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2005년에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2006년에도 등유와 연탄간의 가격구조에 변화가 없는 한 30%대의 높은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III-5] 용도별 석탄수요 및 점유율 전망

(단위: 천TOE)



- 총 석탄수요에서 차지하는 발전용 수요의 비중은 2003년 56.0%에서 2004년에 58.3%로 늘어났으며, 2005년 및 2006년에는 각각 59.5%, 59.9%로 상승할 전망이다. 산업용 석탄의 비중은 2003년 42.5%에서 2005년 38.2%, 2006년에는 36.9%로 하락할 전망이다. 가정·상업용 수요 비중은 연탄소비 급등전망에 따라 2004년 1.7%에서 2005년 2.4%, 2006년에

는 3.1%로 늘어날 전망이다.

<표 III-10> 석탄 수요 전망

(단위: 천TOE)

구 분	2004					2005e					2006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	4/4	연간	
무연탄계	2,145 (-7.2)	1,735 (-11.1)	1,907 (6.1)	2,351 (-6.7)	8,137 (-5.2)	2,109 (-1.7)	1,587 (-8.5)	1,802 (-5.5)	2,585 (10.0)	8,084 (-0.7)	8,510 (5.3)
가정·상업	340 (-9.8)	117 (6.4)	160 (14.3)	768 (36.2)	1,385 (16.3)	539 (58.5)	178 (52.1)	237 (47.9)	1,037 (35.0)	1,990 (43.7)	2,734 (37.4)
산업	1,122 (-12.7)	941 (-10.7)	1,152 (8.2)	1,182 (-7.4)	4,396 (-6.1)	1,053 (-6.2)	761 (-19.1)	939 (-18.5)	1,107 (-6.3)	3,860 (-12.2)	3,613 (-6.4)
발전	683 (5.2)	677 (-14.1)	595 (0.3)	401 (-41.0)	2,356 (-13.1)	517 (-24.3)	648 (-4.3)	627 (5.4)	442 (10.1)	2,234 (-5.2)	2,163 (-3.2)
유연탄계	18,284 (5.4)	17,753 (2.7)	18,540 (5.0)	19,402 (6.3)	73,978 (4.9)	17,942 (-1.9)	18,428 (3.8)	19,675 (6.1)	19,536 (0.7)	75,582 (2.2)	78,339 (3.6)
제철	5,168 (2.5)	5,162 (1.6)	5,198 (0.0)	5,311 (2.4)	20,839 (1.6)	5,092 (-1.5)	4,975 (-3.6)	5,294 (1.9)	5,353 (0.8)	20,715 (-0.6)	21,101 (1.9)
시멘트	1,184 (-15.5)	1,457 (-9.4)	1,253 (-18.2)	1,415 (-6.9)	5,309 (-12.4)	1,033 (-12.8)	1,398 (-4.0)	1,212 (-3.3)	1,371 (-3.1)	5,014 (-5.5)	4,968 (-0.9)
기타산업	636 (1.8)	527 (-1.0)	547 (-1.9)	609 (-2.6)	2,318 (-0.9)	633 (-0.5)	551 (4.6)	557 (1.9)	600 (-1.4)	2,342 (1.0)	2,373 (1.3)
발전	11,296 (9.9)	10,607 (5.4)	11,542 (11.4)	12,067 (10.5)	45,512 (9.3)	11,184 (-1.0)	11,504 (8.5)	12,612 (9.3)	12,211 (1.2)	47,511 (4.4)	49,897 (5.0)
석탄계	20,430 (3.9)	19,487 (1.3)	20,446 (5.1)	21,753 (4.7)	82,116 (3.8)	20,051 (-1.9)	20,015 (2.7)	21,478 (5.0)	22,121 (1.7)	83,666 (1.9)	86,849 (3.8)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무연탄 수요는 2005년에 경기둔화로 인한 산업용 수요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소폭 감소(-0.7%)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에는 5.3%로 반등할 전망이다.

- 가정·상업용 무연탄수요는 등유 대비 상대가격 하락에 따른 석유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2004년에 16.3% 증가하였으며, 2005년 및 2006년

에는 각각 43.7%, 37.4%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 1998년 이후 급등세를 보여 온 산업용 무연탄 수요는 제철공정의 원료용 수요 증가세가 꺾이면서 2004년에 6.1% 감소한데 이어 2005년에도 경기부진으로 감소세(-12.2%)가 이어질 전망이다⁶⁾, 2006년에는 감소추세가 둔화(-6.4%)될 전망이다.
- 발전용 무연탄 수요는 2005년에 전년 대비 5% 내외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에는 감소세가 약간 둔화될 전망이다. 전량 국내산이 사용되는 발전용 무연탄은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0만 톤 수준의 수요는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됨.

□ 유연탄 수요는 2005년에 산업용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발전용 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대비 2.2%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06년에는 발전용 및 산업용 수요가 모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3%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 일관제철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철용 유연탄 수요는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상반기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2고로의 개보수로 인한 66일간의 가동정지의 영향으로 2005년에 0.6% 수준의 감소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6년에는 2005년 수요부진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으로 1%대 후반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 시멘트 생산용 유연탄 수요는 2005년에 건설투자 부진 및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져 5%대의 감소율을 보일 전망이다. 2006년에는 건설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건설경기 침체가 다소 완화되어 수요 감소세가 둔화(-0.9%)될 전망이다.
-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의 투입에너지로 주로 이용되는 기타 산업용 유연탄 수요는 2005년에 전년 대비 소폭 증가(1.0%)할 것으로 예상되며,

6) 산업용 무연탄 수요가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여온 이유는 제철공정의 신기술 도입으로 원료용 무연탄이 원료용 유연탄을 일부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006년에도 비슷한 증가율(1.3%)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타 산업용 유연탄 수요는 230만 톤 내외의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됨.

- 2005년의 발전용 유연탄 수요는 설비증설 저조, 원전 설비증설 등의 영향으로 전년 수준(9.3%)보다 둔화된 4%대 중반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06년에는 전력수요 증가율 상승 및 설비증설 등으로 발전용 유연탄 수요증가율이 약간 상승(5.0%)할 것으로 전망됨.

□ 열에너지 수요는 2005년에 기온효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0% 내외로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2006년에는 2005년의 반등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으로 4%대 중반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2005년 열에너지 수요는 전년 1/4분기의 온화한 날씨 및 올해 1/4분기의 추운 날씨로 인하여 1/4분기에 수요가 크게 증가 하였으며(15.8%), 2004년 4/4분기의 온화한 날씨에 따른 올해 4/4분기의 수요 반등전망(6.7%)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에는 평년 기온을 가정할 경우 열에너지 수요가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수요는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힘입어 2005년에 전년 대비 25%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표 III-11> 열에너지 ·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천TOE)

구 분	2004					2005e					2006e
	1/4	2/4	3/4	4/4	연간	1/4p	2/4p	3/4	4/4	연간	
열에너지	632 (4.8)	186 (9.0)	83 (1.4)	442 (-0.7)	1,343 (3.3)	732 (15.8)	193 (3.5)	80 (-4.1)	471 (6.7)	1,476 (9.9)	1,543 (4.6)
신재생/기타	911 (20.8)	992 (24.0)	953 (24.4)	1,121 (21.8)	3,977 (22.7)	1,140 (25.2)	1,254 (26.4)	1,202 (26.2)	1,382 (23.3)	4,978 (25.2)	6,012 (20.8)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KEEI 에너지수요전망 (제7권 제3호)

2005년 11월 16일 인쇄

2005년 11월 18일 발행

發行人 方基烈

發行處 **에너지경제연구원**

437-71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전화: (031)420-2114(代), 팩시밀리: (031)422-4958

登 錄 1992년 12월 7일 제7호

印 刷 범신사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